



Introduction

04

Introduction

협회소개

운영조직

연혁

사무처

임원사

회원사

비즈니스

14

2022 Highlights

2022 하이라이트

2022 Business

2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예술단체 결연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

메세나 전국망 사업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

34

문화공헌 사업

찾아가는 메세나

Arts for Children

Access Arts

52

조사·연구·학술사업

2021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전국 메세나단체 공동 세미나

해외 메세나 사례 조사

54

한국메세나대회

58

회원서비스

59

커뮤니케이션

Financial Report

62

2022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감사보고서

Press Release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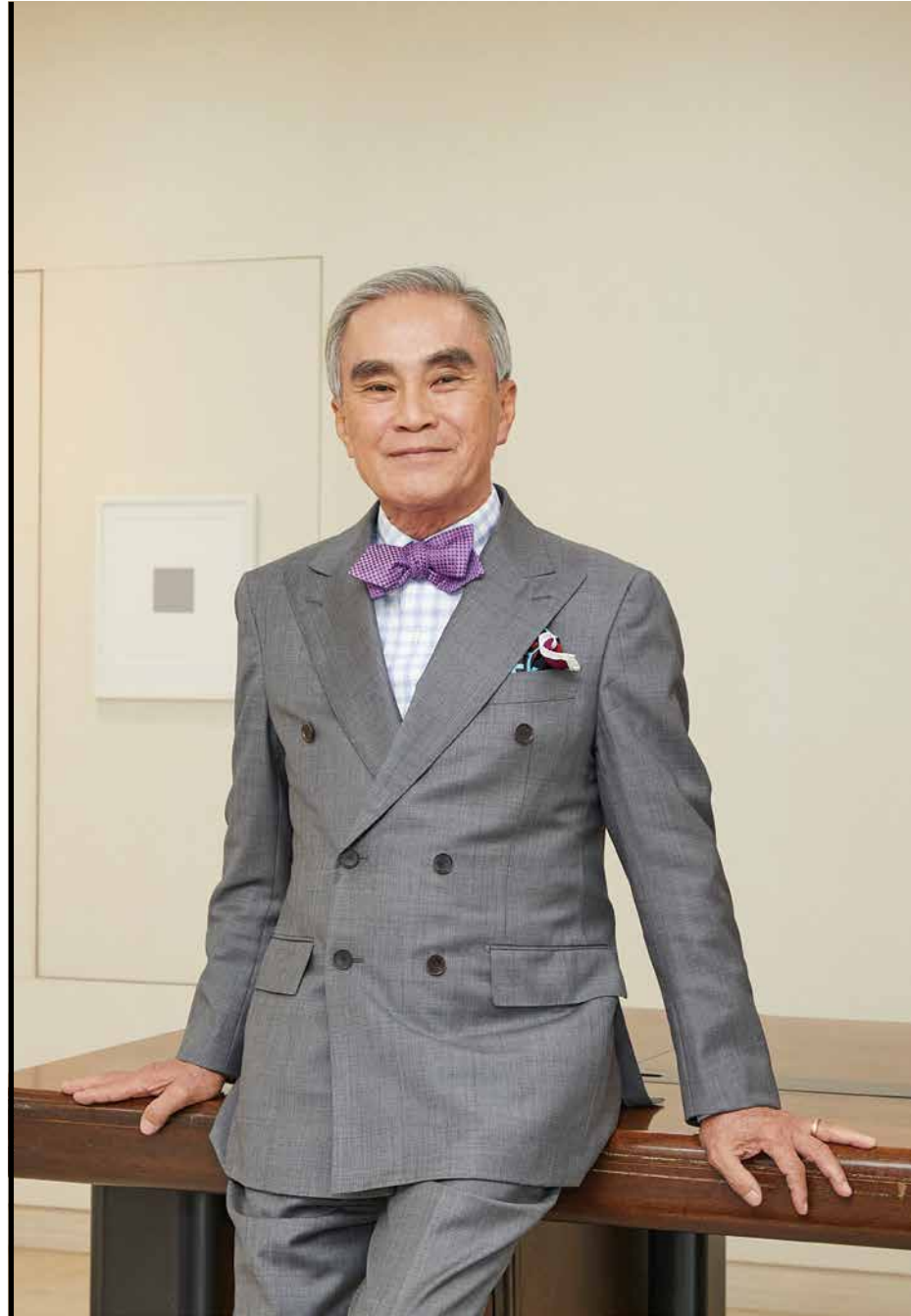
2022 언론보도

길었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듬는 예술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K-아트를 보면서 예술후원과 메세나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서도 문화예술 후원을 그치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을 믿고 오랜 기간 문화사업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의지가 오늘날의 K-아트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 협회도 회원사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2022년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을 통해 306쌍의 커플이 결연의 결실을 맺었고, 문화공헌 사업 또한 최근 경영의 핵심으로 떠오른 ESG경영에 메세나를 접목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경쟁력을 얻었습니다. 참여 기업의 수와 참여율이 늘어 문화소의 계층 아동과 지역민, 임직원 등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군을 비롯한 7명의 국제콩쿠르 본선 진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뜻깊은 음악지원 사업도 론칭하여 성공리에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기업을 매칭해 후속 지원금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이같은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을 통해 기업의 값진 메세나 활동이 재조명되어 예술후원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진정성 넘치는 문화사업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업인들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김희근

우리는 만듭니다.
예술의 미래를,
기업의 성공을,
세상의 변화를.

INTRODUCTION



설립목적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켜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

주요미션

우리나라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에 기여

메세나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득·계층·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

핵심활동

- 1 기업의 기초예술분야 지원 활성화
- 2 문화예술계 진흥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 3 효율적 예술지원 방안 연구 및 자료·데이터 제공
- 4 문화예술 지원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 5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촉진을 위한 법제 및 정책 건의

총회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

회장 선출,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정관 변경 등 의결

*제11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김희근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총 32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

임원 선출, 재산 관리, 회비 책정,
총회 부의 안건 및 위임사항 등 의결

사무처

A&B팀, 문화사업팀, 경영기획팀 등
총 3개의 팀으로 구성

사무처 목적 사업 수행 및 본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

연혁

- 1994. 04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설립
제1대 회장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취임
- 1999. 01
제3대 회장 하나은행 윤병철 회장 취임
- 1999. 10
제1회 문화예술지원기업대상 개최
- 2000. 06
제4대 회장 SK그룹 손길승 회장 취임
- 2001. 10
제2회 메세나대상 시상식 개최
(명칭 변경)
- 2002. 04
1기업 1문화 운동 시작
- 2003. 07
제5대 회장 금호그룹
박성용 명예회장 취임
- 2004. 02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04. 07
'Arts for Children' 사업 착수
- 2004. 09
전국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나눔'
사업 시작
- 2005. 10
제6대 회장 이건설업 박영주 회장 취임
- 2005. 12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 출범
- 2007. 03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출범
- 2007. 05
A&B포럼 론칭
- 2007. 10
예술단체 교육 사업 론칭
- 2007. 11
제8회 '메세나대상'을
'한국메세나대회'로 확대 개최
- 2009. 03
'메세나법 제정' 사업 착수

- 2010. 05
'메세나 Arts Friends' 론칭
- 2012. 02
제8대 회장 두산그룹
박용현 회장 취임
- 2012. 09
'메세나 CEO 문화포럼' 론칭
- 2012. 10
'메세나 회원 음악회' 론칭
- 2013. 02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 변경
- 2013. 1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03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 착수
- 2015. 02
제9대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취임
- 2015. 03
문체부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인증
- 2016. 12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실무 협의체 구성
- 2018. 02
제10대 회장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취임
- 2018. 04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 착수
- 2019. 07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위한
세종문화회관과 MOU체결
- 2021. 03
제11대 회장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취임
- 2021. 03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착수
- 2021. 10
'ESG+메세나' 캠페인 착수
- 2022. 06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 착수

- 2020. 03
제11대 회장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취임
- 2021. 03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착수
- 2021. 10
'ESG+메세나' 캠페인 착수
- 2022. 06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 착수



사무처



임원사

구분	임원사명	성명	직위
회장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
고문	두산연강재단	박용현	이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前 회장
명예회장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노루출당스	한영재	회장
	삼성미술관	홍라희	前 관장
	삼양출당스	김 윤	회장
	설원량문화재단	양귀애	이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유니드	이화영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코오롱그룹	이용열	명예회장
	크라온-해태제과	윤영달	회장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
	풍산그룹	류 진	회장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고려당	정재호	사장
	금호문화재단	양지훈	상무
	남이섬	민경혁	대표
	(주)두산	배정환	상무
	사라	안윤정	사장
	신세계	차정호	대표
	이건출당스	안기명	부회장
	일신문화재단	석세일	이사장
이사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현	회장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프룽	사장
	현대퓨처넷	류성택	대표
	CJ제일제당	민희경	부사장
	LG연암문화재단	양재훈	대표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이형희	위원장
	한미회계법인	김기균	상무
감사	법무법인 에이센트	윤영석	변호사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명 가나다순 |

회원사

회장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벽산엔지니어링	가나아트갤러리	문화유산국민신탁	우진	한진
	강원랜드	미디어월	우진건설	한화
	경남스틸	(주)바텍	원마운트	한화생명
	공간그룹	베이글카페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금융투자협회	보령제약	원포시스	한화솔루션
	금호건설	본아이에프	유안타증권	햇빛담요
	금호고속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유중아트센터	현대백화점
	금호고속 유스케어	삼성SDI	이건산업	현대자동차
	금호미쓰이화학	삼성SDS	이수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금호타이어	삼성물산	인산죽염 주식회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
	나라삼양갑속기	삼성생명	인터파크 큐브릿지	호텔롯데
	크라온-해태제과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호텔롯데 면세점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삼성엔지니어링	일진문화재단	호텔신라
	풍산그룹	삼성전자	재단법인 송강재단	홈플러스
	한미약품	삼성중공업	제우인베스트먼트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효성	삼성증권	제일기획	힐라코리아
		삼성카드	조선호텔	휴맥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종이문화재단	BMW코리아
		삼양인터내셔널	지말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BNK경남은행
		삼익문화재단	지앤히어링코리아	BNK부산은행
		삼일회계법인	컨슈머타임스	DI동일
		삼화에프앤에프	케이옥션	DL이앤씨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아 투모로우	GA KOREA smart city & resort
		서울옥션	코리아리저브험 주식회사	GS칼텍스 아울마루
		선명회 계법인	코스모스약기	GS칼텍스주식회사
		세원특수금융	코카콜라음료	HK
		세일ENS	크레디아프로젝트	HSD엔진
		세화예술문화재단	클라우드나인마케팅	IBK기업은행
		송원문화재단	태영건설	KBS교향악단
		스파크인터내쇼날	템퍼코리아유한회사	KB국민은행
		신라교역	퍼시스	KEB하나은행
		삼성씨에스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KH필룩스
		신한금융투자	한국FPSB	KT
		신한은행	한국광항공사	KT&G
		신한카드	한국광고주협회	LG생활건강
		아시아나HDT	한국남동발전	LG전자
		아시아나에어포트	한국무역협회	LG화학
		아시아나항공	한국서부발전	OCSI
		아이피케이	한국수력원자력	POSCO
		(주)에네스지	한국암웨이	SK건설
		에스원	한국전력공사	SK네트웍스
		영무토건	한국토요타자동차	SK증권
		영앤윌섬 주식회사	한맥도시개발	SK텔레콤
		오리콤	한미회계법인	SK해운
		메트라이프사회공헌재단	한빛문화재단	SM삼환기업
		(주)면사랑	한세실업	TCC스틸
		모나미	한솔케미칼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업명 가나다순 |

기업과 예술의 만남

● **결연 파트너십 구축 지원·컨설팅**

추진방향

- 기업의 효율적인 메세나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카운슬링
- 기업·예술단체 간의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 국제 메세나 유관기관 협력

세부활동

- 기업·예술단체 결연
- 예술지원 매칭펀드
-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
-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
- 메세나 전국망 사업
-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

■ **문화공헌 사업**

● **찾아가는 메세나**

추진방향

- 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및 사회계층 간의 문화예술 향유 불균형 해소

세부활동

-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
- 현대자동차그룹 콘서트 '함께'
-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 LG생활건강 반짝반짝 페리오

■ **Arts for Children**

추진방향

- 아동·청소년 및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제공

세부활동

-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
- 넷마블 창문프로젝트
-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 인천국제공항공사 온-아트스쿨
-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 CJ 튜업음악교실
- KT&G복지재단 아름드리 음악미술교실
- LG 아트 클래스

■ **Access Arts**

추진방향

- 우수 문화예술단체 발굴·육성을 통한 자립지원 및 일반인들의 문화예술 접근기회 확대

세부활동

- 두산아트스쿨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 한국수출입은행 The SAFE
- 한화생명 힐라힐러

■ **조사·연구·학술사업**

● **자료조사 및 정보 제공**

추진방향

- 기업의 예술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조사 데이터 및 정보 제공
-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세부활동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 기업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기업 예술 지원 효과 분석
- 문화예술 후원 관련 사례집 발간
-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조사

■ **한국메세나대회**

▶ **메세나대상 시상식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추진방향

- 지속적인 예술지원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선발하여 시상
- 사회 전반에 예술후원의 분위기 확산 및 홍보

세부활동

- 메세나대상 시상식(대상, 문화공헌상, 창의상, Arts&Business상, 메세나인상 시상)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부문 올해의 베스트 커플 선정)

■ **회원서비스**

● **회원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체험**

추진방향

- 회원사 메세나 실무자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
- 회원사 임직원의 문화 향유 지원

세부활동

- 메세나 CEO문화포럼
- A&B포럼
- 메세나 Arts Friends
- 메세나 예술무대
- 주간 메세나
- 메세나 Members Only

■ **커뮤니케이션**

●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방향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활동

- 언론 홍보
- 반년간지 《메세나》 및 연차보고서 발행
- 온라인 홍보(뉴스레터, 유튜브, SNS)

기업과 예술의 만남

306^{건/결연건수}

278^{개/결연기업}

9,500,000,000^{원/결연금액}

문화공헌 사업

7,440,000,000^{원/예산(기업출연금)}

19^{개/참여기업}

18,822^{회/운영횟수}

문화공헌 사업 참여 예술단체 교육

46^개

242^명

183^명

실연/창작

15^개

238^명

26^명

문화공헌 사업 수혜자 수

36,300^명

뉴스레터·메세나지 구독자 수

17,420^명

유튜브 채널 누적조회 수

181,779^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활성화

지역 기업의 매칭펀드 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예술계에 67억 원 지원
전년대비 결연건수 10% 증가

67^억 10%[↑] 74^억 4%[↑]

문화공헌 사업 확대 운영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의 지속적인 문화공헌 의지로
전년대비 4% 증가한 74억 원 규모의 기업 협력사업 운영

ESG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다각화 시도

환경과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메시지 담은 ESG캠페인 전개
환경, 사회, 이웃을 주제로 한 예술교육 및 임직원 교육봉사 연계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Art & Tech 융합 프로그램 전문 예술가(단체) 협업 시도

청소년들을 위한 AR 무용수업, VR 미술수업 등 운영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 영재들과 함께 NFT 아트워크 제작 및
키아프 플러스(Kiaf PLUS) 참여



K-Art 발전 위한 음악인재 양성

음악인재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신규사업 론칭

반 클라이번 ·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의 본선 진출자 7인에 출전
경비 전달 및 최종 우승자 1인에 기업의 후속 지원 연계

※ 피아노 부문 지원: 김홍기, 박재형, 신창용, 임윤찬
※ 바이올린 부문 지원: 백지현, 위재원, 이수빈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본격화

공연예술분야 편중 지원 해소를 위한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 확대

올해 4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2년간 총 7개의 기업으로 확대

창작지원금을 비롯해 작품 구매, 아트페어 및 도록제작 지원 등 다양한
후원 형태 발굴

※ 바텍—김미영, 한미약품—신건우, 현대백화점—차영석, TYM—김남두

메세나 전국망 사업 지속

5개 지역 메세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소비 촉진 캠페인,
학술 세미나 등 공동 추진

충남, 대구, 광주 등 광역권 기반 신규 메세나단체 설립 위해 지자체 및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 지속

※ 서울(1994년), 경남(2007년), 제주(2015년), 세종시(2020년), 부산(2021년) 설립

문화예매권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개발

인터파크와의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협약 일환으로 진행

고객의 취향이나 일정에 관계없이 손쉽게 문화접대 가능한 TOOL 개발



2022 BUSINESS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기업은 예술을 만나 창의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예술은 기업을 만나 성장 동력을 얻습니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단발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결연을 통해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업·예술단체 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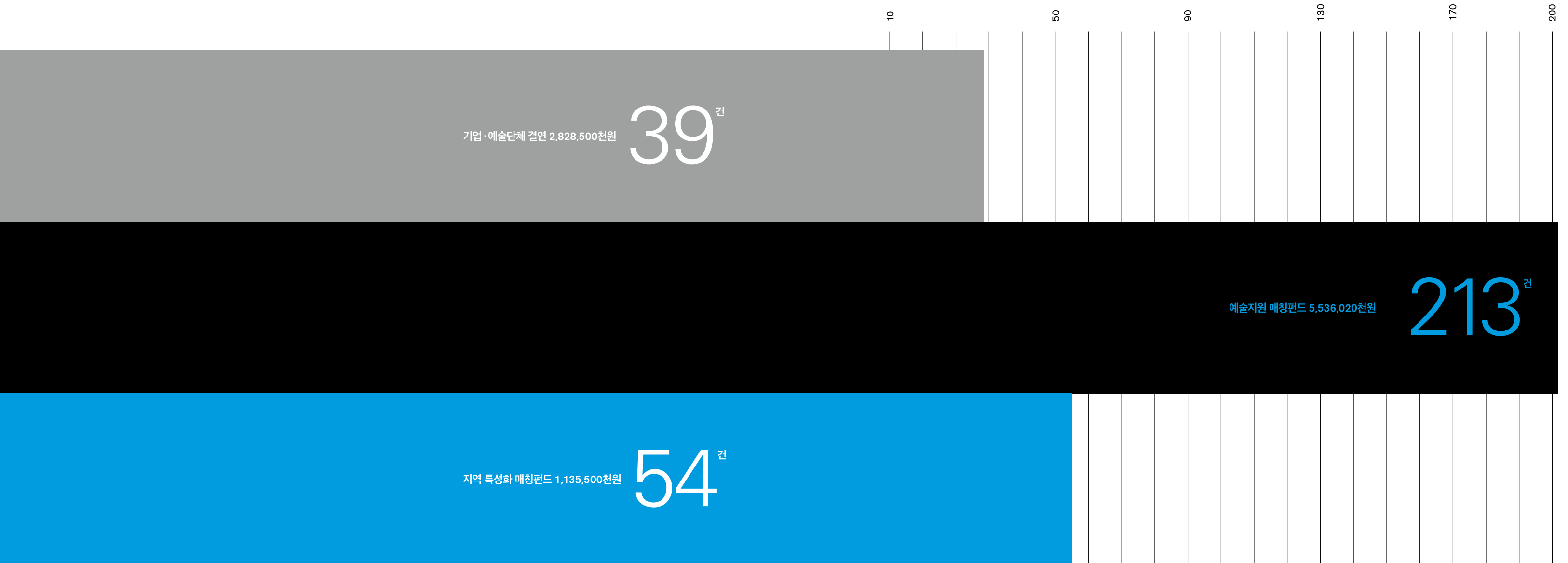
28^{억 원}

예술지원 매칭펀드

55^{억 원}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11^{억 원}



기업·예술단체 결연

기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의 문화경영에 협력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업에게 적합한 예술단체를 추천하고 기업과 예술단체가 결연을 맺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예술단체는 기업의 사회공헌, 마케팅·ESG경영전략 차원에서 기업의 협력자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결연대상

연극, 뮤지컬, 국악, 클래식 음악, 미술, 다원예술, 페스티벌 등 순수(기초)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신청기간

연중 상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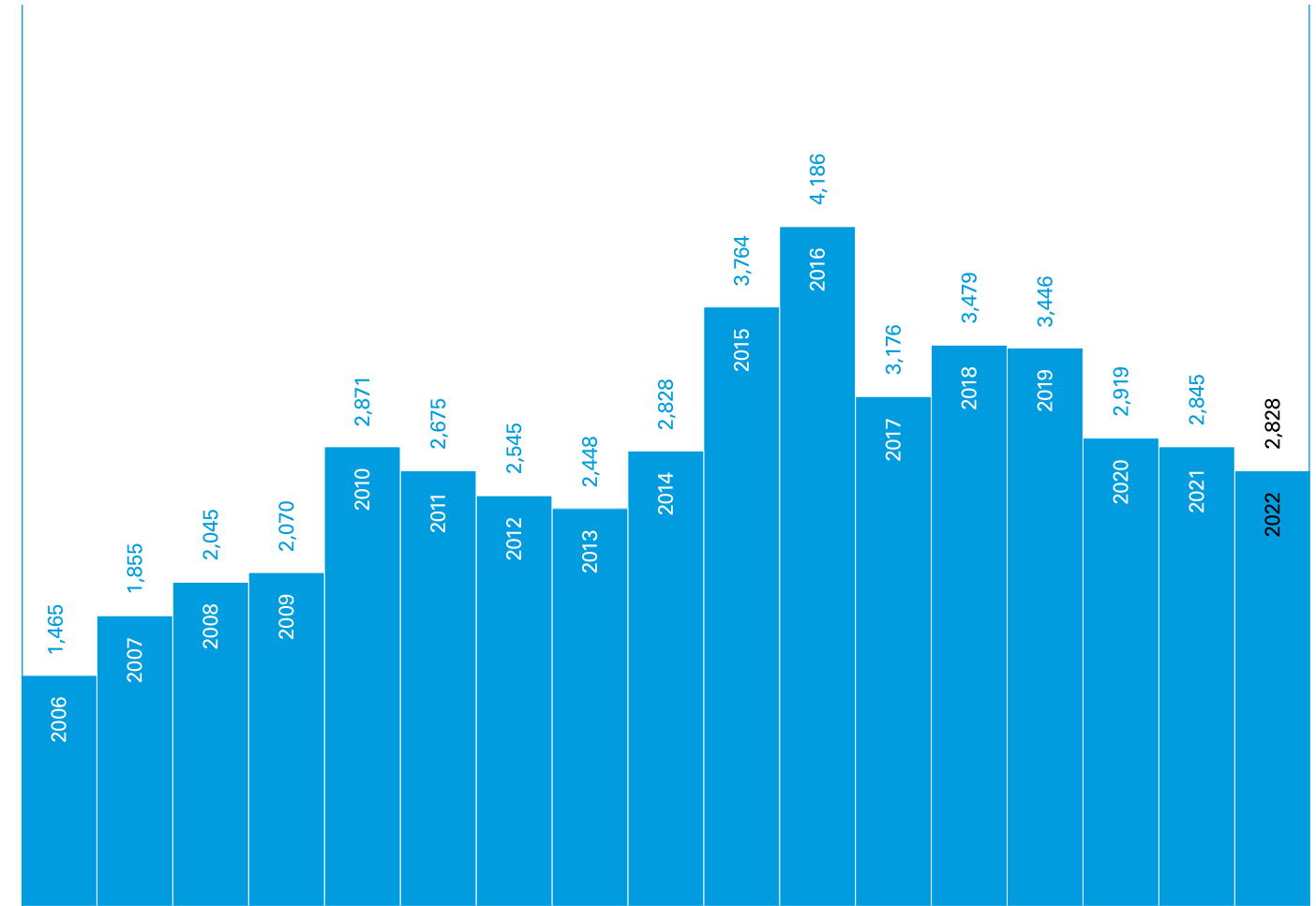
지원금액

제한 없음(지원금 출연: 참여 기업)

추진과정

	신청/분석	준비	실행	모니터링
기업	결연신청	결연예술단체 선정	결연약정 진행 대인론 공표 결연활동 시작	활동 모니터링 평가 및 재설계
협회	기업 needs 파악 및 후보 예술단체 선정	선정결과 전달 및 실무자 미팅 주선		
예술단체	기업협력방안 제공	기업협력방안 내부조정		
협회	후보 예술단체별 기업협력방안 전달	3자 결연 실무 미팅 및 결연약정 협의		

기업	예술단체	기업	예술단체	기업	예술단체
롯데문화재단	뷰티플마인드	한화생명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박산엔지니어링	페스티벌 오원	KT&G장학재단	세계발레지도자협의회	KT&G장학재단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케이옥션	우리들의 눈	LG연암문화재단	ABC랩	대원문화재단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신세계면세점	밝은방	케이옥션	한국고간찰연구회	실원량문화재단	페스티벌 오원
한국남동발전	에너지월드	한미약품	한국연극협회	종근당	MIRI오페라단
현대백화점	대구화랑협회	LG연암문화재단	JS미디어랩	한국전력공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KT	핸드스피크	금호타이어	디스코크리에이티브	대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
LG생활건강	음악극창작집단 통방	동아제약	문화예술봉사단메리	신세계백화점	한빛예술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퓨전국악밴드 날다	신한은행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크라온-해태제과	아트공감
케이옥션	서울환경영화제	케이옥션	한국미술사학회	태광산업	행복나무플러스
LG연암문화재단	이날치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AUX	종근당	아트스페이스휴
크라온-해태제과	창작집단 깎두기	금호타이어	A.COM	현대중공업	USP챔버오케스트라
템퍼코리아	은행나무출판사	올림푸스한국	세종문화회관	CJ문화재단	화음챔버오케스트라



| 연도별 결연 금액(단위: 백만 원) |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7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예술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예술 후원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의 사업으로, 기업의 예술 후원금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 예술 후원의 기반 확장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남·제주·세종시·부산메세나협회와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에는 전국 206개 기업이 참여해 213개 예술단체에 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여대상

상호 후원 계획이 확정된 기업 및 예술단체

신청기간

2022년 3월~8월

추진과정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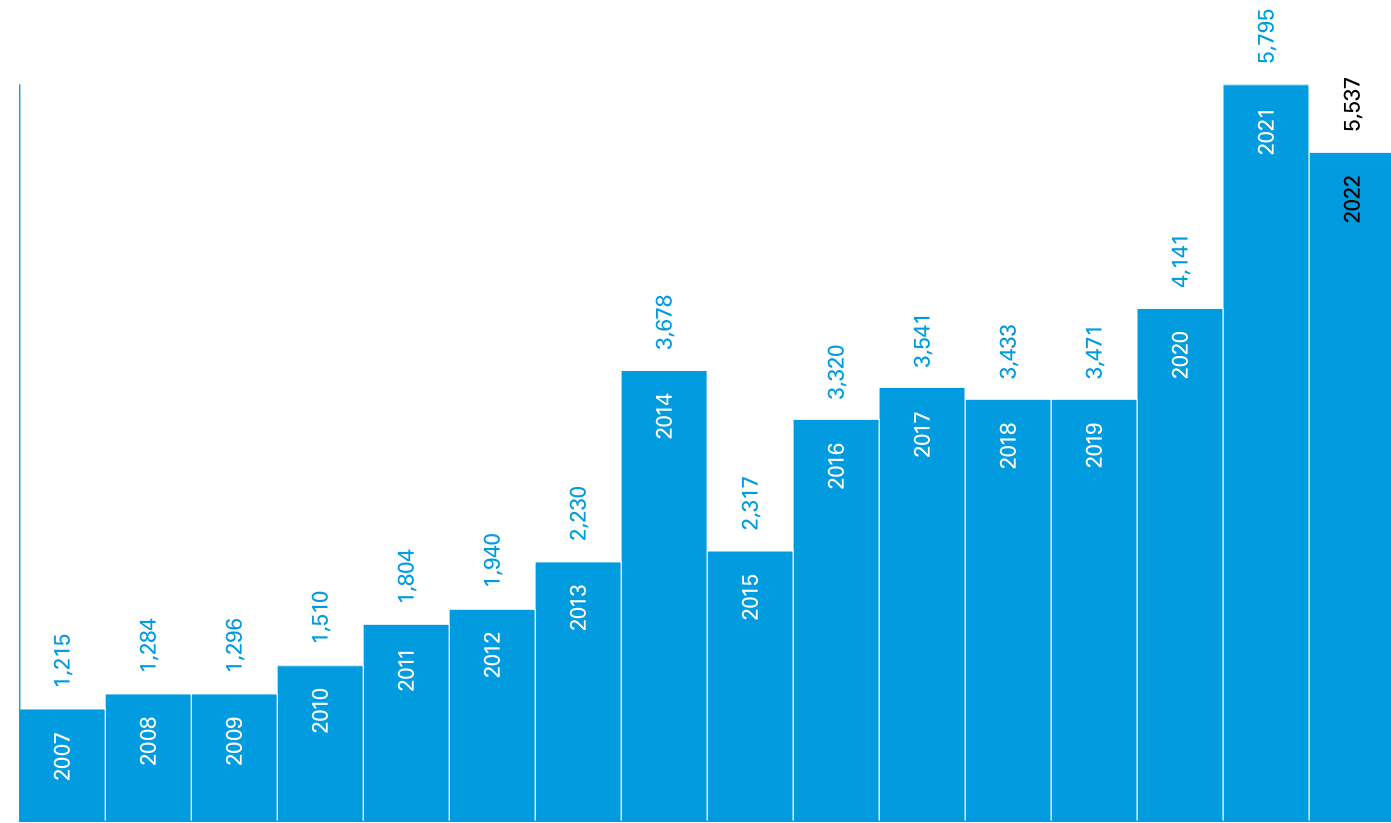
구분	지원금 매칭 비율	기업지원금	펀드교부금
중소기업	최대 1:1	최소 500만 원 — 상한선 없음	최소 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중견기업		최소 1,000만 원 — 상한선 없음	
대기업		최소 1,500만 원 — 상한선 없음	

기업	예술단체
에네스지	대전 오라토리오
산책	한국동요음악협회
위주테크	극단 글로벌극장
보미양만	Bel di music
세종이앤씨	한국연출가협회
신태양종합건설	극단 이티에스 (ETS Theater)
좋은 친구들	극단 가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트리니티이앤엠
더블에이치컴퍼니	극단 무아지경
비엔피엔지니어링	극단 이야기
알파지이테크	솔리스트 브라스 밴드
대양기술	엠제이플래닛
경남스틸	경남오페라단
에이치케이	행복나무플러스
한샘이팩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일성해운	우리노래팔찌
비케이위너	조은극장
퀀텀인텔리전스	FACTORY2
뉴태양	동그라미그리기
남이섬교육문화그룹	춘천마임축제
제이픽처스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화인도시개발	극단 우리두리
청솔트러스트 (올리비움산후조리원)	디아트윈
동일문화장학재단	대구음악협회
엘지전자	창원예총
다진	오쇼오쇼
상일전산품	뉴서울오페라단
우림엠엔에이치(MNH)	콘티(Con.T)
오성정보통신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대명복지재단	비바츠아트그룹
티엔티스쿨	꽃 필 무렵
새문암병원	광주오페라단
이에스메디텍	홍정희오페라단
벽산문화재단	극단 전화벨이 올린다
노래의심	두팔로
연세베스트요양병원	리움챔버오케스트라
우리술	ART STAGE
대창스틸	다울-청평문화예술학교
원테크	서울모테트음악재단
건영씨앤씨	디오티 미술관
동화케이بل	새노리
아성산업	극단 마중물
동양제관	극단 적인
정현재단	솔오페라단
피에스디앤씨(P.S DNC)	컬처마케팅그룹
참도개비유통	케이뮤지컬컴퍼니
신풍제약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큰사람커넥트	코리아나 챔버뮤직
집모아	소사이어터
벽산파워	노블아트오페라단
와이유엔	콘텐츠 윈
	페스티벌 오원
	극단 서라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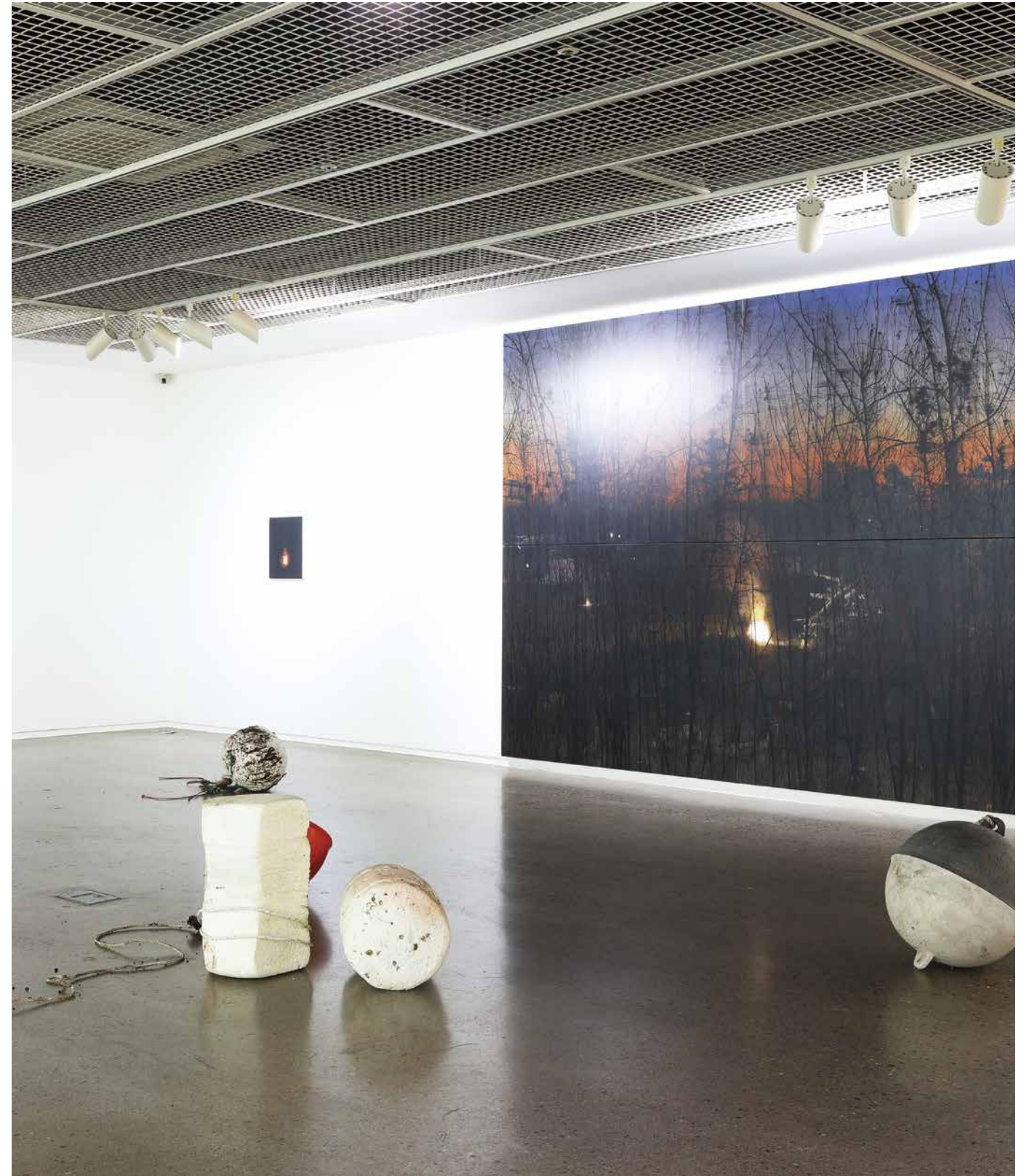
기업	예술단체
케이에이치 필룩스	극단 즐거운사람들
동성화인텍	아트쇼부산
이음스토리	아아프양상블
퀀텀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	한누리무용단
지중공업	한국세필화연구소
좋은씨씨죽전치과	안산오케스트라
유진이앤씨텍	민드림컴퍼니(창작집단)
영도벨벳	글로리아오페라단
구루미	구미오페라단
야후건기	고래
좋은공간	호남오페라단
태백산조경	극단 사계
치어럽스메디	극단 유쾌한씨어터
에스엠이앤지	극단 예결
코퍼스코리아	극단 해프닝
미라클어스	KCO 첼로 앙상블
뷰티팩토리	피카스(PICAS)
	딤스트 댄스 (deep thought dance)
인디컴	스튜디오 반
싱크폴	앙상블 공간
메인스트리트벤처스	위클래식
메인스트리트인베스먼트	아트브릿지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마당
필에드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노루홀딩스	아크컴퍼니
위피피	다이얼로거
몽당협동조합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도원씨에스	에드칸
유엔테크	명작극장
제이앤엘 파트너스	하늘극단
애플클로젯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선플러스치과의원	경상도민요보존회
한국예술플라멩코문화원	대전민예총
교동식품	대진민예총
스마트포테크놀로지	무지카글로리피카
성남	오오씨어터
디와이엘씨디	극단 아리랑
퓨어네스트	보로딘심포니오케스트라
영텔레콤	예술집단 하우
삼경건설	양산공연문화예술협동조합
도화바른의원	비바무지카
엘에이피한터인	UNICO
종합건축사사무소	트러스트무용단
이안세무법인	한국음악협회
크라운해태홀딩스	제비꽃아트그룹
법무법인 덕민	퓨전타악그룹 자유
씨에스텍	에이전시 퀴퀴 (AGENCY RARY)
대일건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집행위원회
아주아이비투자	한국בל레협회
신신제약	뮤직씨어터 슈바빙
대건기업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두원이에프씨	

기업	예술단체
삼지건설	국제연극연구소H.U.T.E.
현대회계법인	극단 아신아트컴퍼니
테팩스	서울오케스트라
두원이앤지	두남재
국제유통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삼표에너지	세종솔로이스츠
용인치과의원	마나소누스 앙상블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프렌즈 오브 뮤직
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오라토리오
애플클로젯	빈아트
서경파츠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빌트조명	이강 PLAY(이강 플레이)
대일건설	새서울기획
서우디자인	한국현대무용협회
프라임미디어	자하미술관
삼원태양광발전소	앙상블 라퐁텐
세담세무법인 (舊굿모닝세무법인)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인덕원치과의원	안양윈드오케스트라
메탈랩	제이퍼블류(JW)엔터
그린에어존	강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에인치과의원	순천시민오케스트라
선진전력기술단	피오에이에이치(PoAH) 피아노 연구회
두남화학	플레이온컬처
세민종합건설	극단 전원
이건창호	아름지기
센트럴노무법인	엠비제트컴퍼니
에름사	브라보체(BRAVOCE)
바롬코리아	룩스빛 아트컴퍼니
면사랑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젬백스링크	관악교회
푸른들소프트	프란츠클래식
하나로유통	다산미술관
윌터	기타치는 홀리데이
남향푸드뜨띠아	엘에이치퍼커뮤니케이션
벽산문화재단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야후건기, 셀루메드	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뉴태양	바위처럼
두원이에프씨	차이코프스키 씨앤씨
노루홀딩스	심포니송
두원이앤지	서울시민간오케스트라 연합회
관세법인 정상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롯데관광개발	제주시티발레단
필뮤직기획	메모리아합창단
스카이뷰	제주문화기획연구소
동산창호	광개토제주예술단
모구리	춤집단연지
사운드스페이스	제니크퀸텟
봄보름	제주칸투스합창단
승진목재	서귀포실버악단
갤럭시렌트카	한라윈드앙상블
대동산업	구좌합창단
제주여객자동차	자작나무숲

기업	예술단체	기업	예술단체	기업	예술단체
민형중합건설	제주 한소리여성합창단	엠에스에듀	월드뮤직밴드 제나	코코스소프트웨어협동조합	극단 라인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아트커뮤니티와	정익중합건설	경남피아노듀오협회	티스케이프	극단 스토리팜
더스테이지	아르모니아뮤지컬레스 인제주	좋은데이나눔재단	고성오광대보존회	포스테코	시나위 공연기획단
비움	극단 파노가리	중앙기업	창원뉴아트오케스트라	삼성셀코	부산뮤지컬단
선우토건	제주보체스콰이어	중앙자동차검사정비	선음회	은산해운항공	뉴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주파인앤즈	스트링앙상블 올레	지엠아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벨라미치예술단	서진씨앤디	박성호무용단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디엠디컴퍼니/델문도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참신한건설	극단 현장	윈스틸	부산문화
경한코리아	숫대패사물놀이예술단	청담한의원	큰들문화예술센터	놀다	맨즈하모니
금곡	경남예총	한국아나세, 좋은데이나눔재단	경남미술협회	영인에프에이씨	신은주무용단
경남자동차판매	경남첼버쏘사이어티	화인테크놀로지	코리아드림신포니에타	해러(우리문화예술연구소)	더하모니아스앙상블
국토보상원, 대하종합건설	경남연극협회	경한코리아	경남오페라단	베스트플레이닝	더뉴앙상블
그린자원	극단 이루마	예인여성병원	에이원 문화예술연구회	지오비스	mM아트갤러리
대중이엔에프	세종국악회관	두남화학	문화홍신소	부산은행, 동성화인텍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대홍알엔티	아미치델라무지카	케이시피	이태상프로젝트	동성모터스	고은문화재단
로드투어	보현실버합창단	사람과공감	아울 아र्ट	세운철강	유라시안코퍼레이션
모산에프에스, 대홍알엔티	앙상블이랑	제이투케이글로벌	극단 연	강림씨에스피	아트뱅크코리아
베스트에프에이	아토오페라앙상블	티엠이씨	극단 영스	부산교통공사	문화공감
삼성폴리캠	페트라싱어즈	디엔케이개발	극단 코코	MBP	극단 종이달
성주재가노인복지센터	클랑피아노앙상블	진성기전	따뜻한 사람	페더럴모글세종	세종챔버뮤직소사이어티
		해리어나	극단 이야기협동조합	세종중앙신탁	세종킹스콰이어
				MBP	세종시티발레단



| 연도별 결연 금액(단위: 백만 원) |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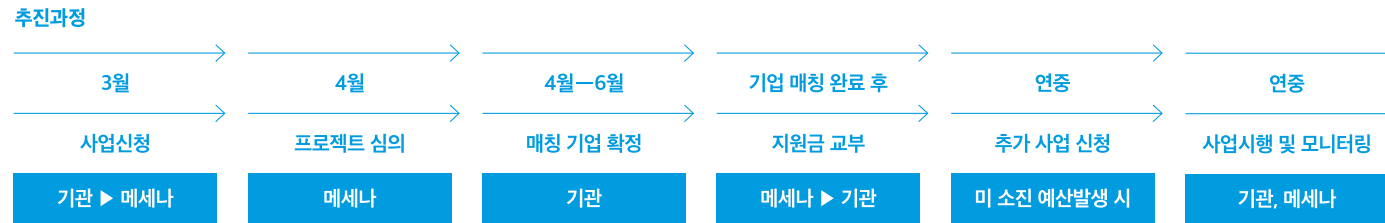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는 예술지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에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대표적인 기업 후원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문화예술기관-지역 예술계의 3자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지역 내 예술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예술단체(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54건의 기업 후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18개 기관의 29개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참여대상
공공 문화예술재단 및 기관(국립기관 제외)

신청기간
2022년 3월-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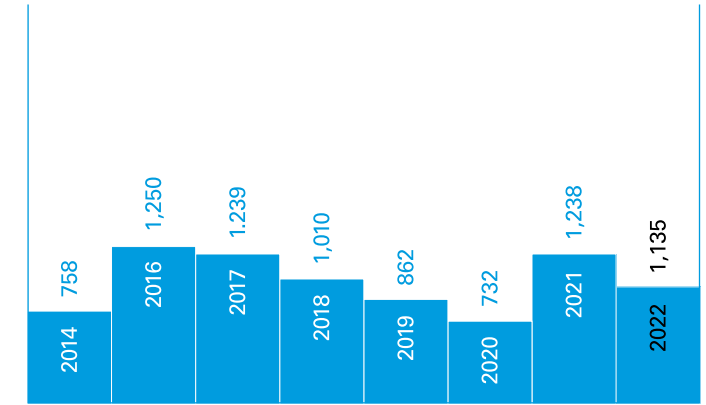


지원금액

기업지원금		펀드교부금	
사업별 지원금액	기관별 지원총액	사업별 지원금액	기관별 지원총액
최소 500만 원-상한액 없음		최소 500만 원-최대 3,000만 원	최소 500만 원-최대 5,000만 원

기업	기관	사업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DGB사회공헌재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화종합환경 바버네트웍스 디아티스트매거진 현대이앤씨 영남바론상조 반올림식품 JID 사람과연근 팔봉리푸드 일품 농업회사법인감미오네	대구 문화예술 진흥원	2022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청년예술인 육성지원사업
TBC문화재단		장애·비장애 청년예술가들의 ‘공존 아트’ 플랫폼 및 브랜드 구축 프로젝트
벽산엔지니어링	충남문화재단	2022 벽산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1% 나눔 도시재생 프로젝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연 樂樂 (Knock Knock)〉
스테틀러 코리아	세종문화회관	스테틀러와 함께하는 여행드로잉 전시 〈Everybody can draw〉
한화생명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국내 창작공연 제작지원 및 문화나눔
경남은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문화재단	2022 울산에이팜
S-OIL 온산공장		제56회 처용문화제
베네팜	광진문화재단	2022 나루 커넥트 실내악 페스티벌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예술가와 떠나는 예술여행 ‘원데이 아트투어’
하나금융티아이		IAP X 하나금융TI 시리즈 2022
유니크플랜 정석케미칼 국민종합주택관리		전주다복(多福) 음악회
전북은행	전주문화재단	2022 전주브랜드공연 마당창극 〈칠우전(七友傳)〉
경암		2022 그린네상스 프로젝트
유니온씨티		2022 탄소예술 기획전

기업	기관	사업명
CNCITY에너지	대전고암미술 문화재단	이영노미술관 청년작가 프로젝트 ‘아트랩대전’
아이렉스 도영산업 피엘엠 피엔알엠 동성계전 동신해운 승유	포항문화재단	2022 포항음악제
어울림미디어컴 농협은행 세종시청지점	세종시문화재단	2022 여민락콘서트
블랙스톤에듀파리조트	충북문화재단	블랙스톤벨포레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다방
경남은행	창원문화재단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	강원문화재단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 그래피티 아트워크숍
벽산엔지니어링	종로문화재단	어린이병원 힐링플레이
이피코리아		2022 성동예술정원
신한은행 행당동지점 이피코리아	성동문화재단	2022 청춘버스킹 in 성동
두나무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백남준의 보고서〉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전 〈바로크 백남준〉
올림푸스한국	서울문화재단	2022 시민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
신세계L&B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
하이트진로 특판전주지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 전라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리산의 바람’



연도별 결연 금액 (단위: 백만 원)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은 타 장르보다 시각예술 분야의 메세나 활동이 미비한 실정을 고려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메세나 사업입니다. 협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우수 화랑 소속 작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후원을 연계하고, 기업은 후원 작가에게 3년 간 창작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작가는 창작지원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작가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1년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벽산엔지니어링, CJ문화재단이 전희경, 안상훈, 정정주 작가를 지원한 데 이어 2022년도에는 TYM, 바택, 현대백화점, 한미약품이 김남두, 김미영, 차영석, 신건우 작가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 ◆

2022년 신규 론칭된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 사업’은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 음악 인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 등 5개 메이저 국제 콩쿠르의 바이올린·피아노 부문 본선 진출자 중 연간 5인 내외를 선정해 콩쿠르 출전 경비를 지원하고 최종 3위 내 입상자에게는 기업의 후속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7인의 연주자(김흥기, 신창용, 박진형, 임윤찬, 백지현, 위재원, 이수빈)에게 출전 경비 3,500만원(1인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는 KT&G장학재단의 후원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매칭했습니다.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 ●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은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리고 기업의 문화소비를 유도해 예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기업 문화접대비의 50%를 지원하는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최대 3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인터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 예매권’을 발행해 거래처의 일정·취향 등에 제약 없이 원활한 문화접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업인 초청 문화접대비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유관부서 실무자들이 직접 문화접대를 체험하고 관련 제도의 효용을 인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널 위한 문화예술’·‘또모’와 홍보 영상을 제작해 기업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메세나 전국망 사업 +

‘메세나 전국망 사업’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 메세나 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 거점 메세나단체를 육성하고 메세나단체 간 전국 단위의 통합 네트워크(가칭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한국메세나협회 및 경남·제주·세종시·부산메세나협회가 협력하여 공동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접대비 제도 및 ESG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충남·대구·광주 메세나단체 추가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자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 ▶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은 기업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후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현재 예술과 후원 활동에 관심 있는 20여 명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네오메디치포럼’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메세나 활동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공동으로 유망한 젊은 예술가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예술 후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공헌 사업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를 누리는 삶을 만듭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출연기업들과 협력하여 문화소의 계층, 지역사회, 기업 임직원,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인 등과의 '문화나눔'을 위해 '찾아가는 메세나' 'Arts for Children' 및 'Access Arts'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문화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브랜드 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66 회

9,702 회

Arts for Children

18,614 회

23,705 회

Access Arts

142 회

3,582 회

찾아가는 메세나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 혹은 초청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공헌 사업

- 37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37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
- 38 현대자동차그룹 콘서트 '함께'
- 38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 39 LG생활건강 반짝반짝 페리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지역사회 곳곳에 울려 퍼지는 오페라 선율 투병생활로 지친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에게 오페라 음악을 선물합니다. 병원 로비에서 오페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오페라&콘서트>와 어린이 환우들을 위한 오페라 <KIDS HOPERA>로 구성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학교를 찾아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3월—12월

추진실적 _____

- 키즈오페라 <칙칙폭폭 생생> 공연 20회 진행, 2,171명 아동 관람
- 당진·안산지역 <오페라&콘서트> 2회 개최, 1,099명 관람

횟수 **22** 수혜인원 **3,270**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

도시 산간 작은 학교에서의 일일 국악캠프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맞춤형 국악 프로그램 및 창작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원데이 예술캠프입니다. 판소리, 전통탈춤 등 연희극을 비롯해 락음악국악단 및 동락연희단의 국악 연주, 크라운해태 뮤지엄의 과자놀이 등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통문화 체험으로 채워집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5월—12월

추진실적 _____

- 보은·횡성·군산·파주 등 6회 캠프 진행, 400명 아동 참여
- 지리적·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접근성 확대 기여

횟수 **6** 수혜인원 **400**

현대자동차그룹 콘서트 '함께'

장애 × 비장애예술인이 '함께' 찾아갑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어 장애·비장애예술인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댕고, 복지관, 지역 내 대극장 등을 찾아가 장애예술의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9월—2023년 3월

추진실적 _____

- 2022년 12월 수도권 내 장애유관시설 4곳 공연 진행(총 265명 관람)
- 2023년 2월 세종예술의전당, 부산 금정문화회관 공연 진행(예상관객 수: 1,800명)
- 발달장애 시각예술인 5인과 장애·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지원

횟수 6 수혜인원 2,065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청소년 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지역적·환경적 제약으로 공연문화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공연 및 무대예술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관련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8월—12월

추진실적 _____

- 2021·2022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 공간지원자, 연극 <클럽 베를린> 제공
- 경기·부산·충남지역 중·고교 학생 총 700여 명 관람

횟수 3 수혜인원 700



LG생활건강 반짝반짝 페리오

뮤지컬에 녹여낸 건강한 위생습관 올바른 손씻기와 양치질 방법을 뮤지컬에 접목시켜 전국의 어린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를 통해 재미있게 건강한 위생습관을 습득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4월—2023년 3월

추진실적 _____

- 총 29개 기관(유아교육기관 25개소, 지역문화회관 4개소)에서 3,000여 명의 아동 관람
-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와 효과적인 교육 내용 전달을 통해 교사,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제고

횟수 29 수혜인원 3,049

Arts for Children

우리의 미래세대가 예술을 배우고 체험하게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사업으로 음악회·전시회 개최, 청소년 진로체험, 장르별 영재 육성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부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건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공헌 사업

- 41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
- 41 넷마블 창문프로젝트
- 42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 43 인천국제공항공사 온-아트스쿨
- 43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 44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44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 45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 46 CJ 튜입음악교실
- 47 KT&G복지재단 아름드리 음악미술교실
- 47 LG 아트 클래스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

예술로 배우는 안전교육
 청소년을 위한 7대 의무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예술과 접목시킨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도권, 대전 등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고력과 위험상황 대응력을 제고하며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4월—11월

추진실적 _____

-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모티브로 영상을 제작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함
- 초등학교 4,019명(15개교), 중학생 1,680명 참여(3개교) 참여

횟수 **18** 수혜인원 **5,699**



넷마블 창문프로젝트

기술(Tech)과 예술(Art)의 만남
 미술·음악과 코딩이 융합된 창의문화 예술교육으로, 서울 구로구 지역아동들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며 창의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넷마블 임직원 기부금에 넷마블문화재단이 금액을 더하여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4월—12월

추진실적 _____

- 총 12개 기관, 117명의 아동에게 온·오프라인 교육 24회 진행
- 넷마블 사옥 내 아동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전시회 개최

횟수 **289** 수혜인원 **117**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ESG 경영이념 품은 미술교육

아동복지기관과 함께하는 대화 중심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사회, 이웃을 주제로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우리카드 임직원의 교육봉사를 통해 ESG 경영이념을 실천합니다. 또한, 아동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패턴 굿즈를 제작·기부해 나눔의 순환 고리를 구축합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9월—2023년 4월

추진실적 _____

- 총 10개 기관 16회차 교육 및 60명 아동에게 친환경 교육 재료 키트 제공
- 아동의 작품을 토대로 패턴 굿즈 제작 후 아동복지기관에 기부

회수 160 수혜인원 60



인천국제공항공사 온—아트스쿨

Fly to the Art!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중구(영종도) 지역의 학교로 찾아가 다양한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예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ESG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4월—2023년 1월

추진실적 _____

- 총 20개교(초등 14개교, 분교 4개교, 중등 2개교)의 학생 2,300여 명 참여
- 사물놀이, 전통공예, 연극, 미디어아트 등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15개의 예술 장르로 구성, 강사 29명 참여
- 여름방학 '엔택트 아트클래스'를 통해 인천지역 청소년에게 아트키트 배포

회수 1,360 수혜인원 2,300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지역사회를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예술교육 포함·광양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주 1회 예술교육을 제공하면서 매년 기관별 1회 이상의 나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은 친환경 테마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소셜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아동들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5월—2023년 3월

추진실적 _____

- 총 80개 센터(광양 18개, 포함 62개)의 아동 1,208명 참여
- 공예, 국악, 문학, 미술, 합창 등 다양한 장르 운영
-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강사 38명 참여, 매년 워크숍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역량 강화

회수 2,080 수혜인원 1,208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미래세대가 그리는 무한한 가능성

미술에 대한 꿈과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선발해 아티스트의 꿈을 실현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미술영재 장학사업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유명 아티스트와의 멘토링, 아트페어 참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

추진실적

- 제페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메타버스 월드 및 아이템, AR 필터 제작
- ESG 메시지 확산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 'DREAM GREEN TOWN' 론칭
-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NFT 아트워크 창작 멘토링 및 Kiaf PLUS 2022 참여

횟수 **11** 수혜인원 **80**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안전의식과 예술체험, 두 마리 토끼 잡기

무용을 접목한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입니다.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6월—2023년 3월

추진실적

-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전국, 600명), 대면(영남권, 100명) 안전교육 진행
- 현직 초·중·고교 교사 1,000명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직무연수 운영
- '서울안전한마당' 행사의 부스 운영으로 5,000여 명 참여
- 반려동물 동반 재난대비 매뉴얼 제작

횟수 **57** 수혜인원 **6,700**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음악성 발굴

악기를 한 번도 연주해 본 적 없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알려주고, 앙상블 교육 및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음악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환경적 제약이 없는 지역 기반의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청소년의 내적 성장을 북돋우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5월—2023년 2월

추진실적

- 천안·청주 지역의 70여 명 단원들과 파트별 수업 및 관·현악 앙상블 진행
- 지역 사회 내 봉사연주 및 정기연주회 통해 재능을 나누고 소통하는 경험 마련

횟수 **155** 수혜인원 **78**



CJ 튜업음악교실

다문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나눔 밴드 음악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관 확립과 재능 개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J문화재단 튜업 뮤지션, 대중음악 장학생들이 참여해 문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3월—12월

추진실적

- 5개 기관의 청소년 145명, 뮤지션 50명 참여
- 기관별 평균 40회 악기교육 및 교실음악회, 음원 제작 프로젝트 등 참여
- 나사로청소년의집 레인보우 밴드의 두 번째 싱글 앨범 <몽유도원도> 발매

횟수 **150** 수혜인원 **145**



KT&G복지재단 아름드리 음악미술교실

아동들의 창의성·자아존중감 UP!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의 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 5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와 예술강사 매칭을 통해 음악·미술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3월—12월

추진실적

-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효과로 아동·학부모·기관장의 높은 만족도 견인
-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참여율을 높여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
- 수도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4,500여 명과 예술강사 208명 매칭

횟수 **14,267** 수혜인원 **4,500**



LG 아트 클래스

예술교육에 첨단 과학기술을 더하다
초등생에게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교육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중학생에게는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유명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부터 시니어를 위한 공연 초청도 시작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5월—2023년 2월

추진실적

- 초등생 대상 기술기반 예술교육(AR 적용 무용수업 330명, VR 활용 미술수업 270명, 건축수업 213명 참여)
- 중학생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학교로 아티스트가 찾아가는 교육 340명,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공연관람 1,088명 참여)
- 시니어 대상 연극공연 164명 관람

횟수 **67** 수혜인원 **2,405**

Access Arts

우수 문화예술단체 발굴·육성과 일반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메세나 활동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임직원들을 비롯해 고객과 이해관계자, 지역사회가 일상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헌 사업

- 49 두산아트스쿨
- 49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 50 한국수출입은행 The SAFE
- 51 한화생명 힐라힐러



두산아트스쿨

전문 예술인을 꿈꾸는 청년들과 창작 워크숍 공연분야의 청년 예비 예술가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의 전문 지식 전수 및 네트워킹, 무대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5월—2023년 1월

추진실적 _____

- 총 6회의 워크숍에 100여 명 청년 참여
- 올해 상반기 참여자 90% 이상이 '창작에 대한 자신감 및 자존감 상승'에 응답
- 본 사업 참여 후 작품발표 혹은 예술인 데뷔사례 다수 발굴

횟수 **60** 수혜인원 **106**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시민과 아티스트에게 선물(The Gift)을!
문화예술 사회공헌 'The Gift'는 역량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3년간의 장기지원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_____

2022년 3월—2023년 3월

추진실적 _____

- 서울·춘천·포항지역 내 <The Gift> 공연 3회 개최하여 지역주민 1,615명 관람
- 평균 95%의 높은 관객만족도 달성
- 'The Gift' 1-2기 지원단체가 함께하는 합동공연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및 예술단체의 역량강화 입증

횟수 **3** 수혜인원 **1,615**



한국수출입은행 The SAFE

금고(The SAFE)에서 피어난 현대미술
한국수출입은행의 유휴공간이던 옛 금고를
갤러리로 조성하여 미술작가들에게 전시 기회
제공 및 작품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6월—2023년 1월

추진실적

- 서혜영, 유나얼, 정진, 조영각 등 작가 4인 릴레이 전시 개최
- 지역아동센터 대상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총 8회 진행(총 173명 참여)

횟수 **8** 수혜인원 **173**

한화생명 힐라힐러

근로자의 마음건강 이루만지는 예술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문화예술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업무 스트레스 완화는 물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6월—2023년 1월

추진실적

- 콜센터 상담사 대상 가야금, 라탄공예, 칼리바, 강연(인문학·미술) 등 프로그램 진행
- 고객센터(서울·울산·용인) 임직원까지 참여대상 확대
- 총 9개 장르 823명 콜센터 상담사, 고객센터 임직원 참여

횟수 **71** 수혜인원 **1,630**



조사·연구·학술사업

2021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조사대상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매경회사연감 자료 기준)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716개 사

조사응답

264개 사(응답률 36.9%)

조사기간

2022년 3월—6월(4개월)

조사결과

2021년 국내 기업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약 1,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1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기업 수(493개 사), 지원 건수(1,051건) 역시 각각 10.3%, 26.4%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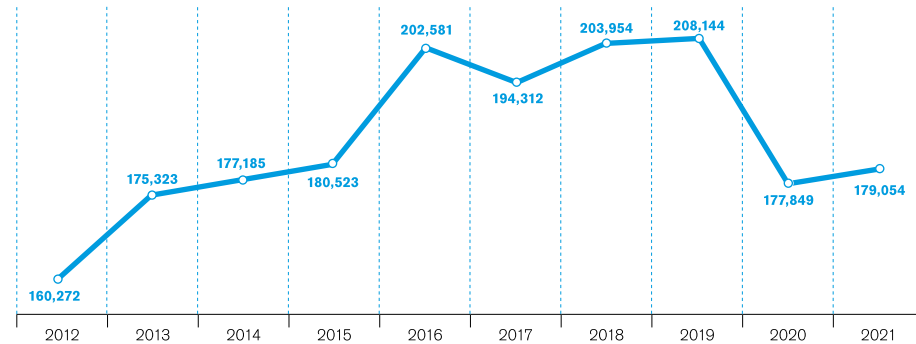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프라(공연장,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등) 운영 침체기를 활용해 재투자한 활동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예술계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중 가장 높게 집계된 인프라 분야 지원 금액이 1,055억 1천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1억 9천1백만 원)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통적으로 지원 규모가 컸던 클래식(116억 7백만 원) 분야는 전년 대비 14.6%(14억 7천9백만 원) 증가했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밖에 미술·전시(-8.7%), 문화예술교육(-2.6%), 문학(-7.7%), 국악·전통예술(-28%), 연극(-8.2%), 영상·미디어(-21%), 무용(-10.2%) 분야의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는 기업 메세나 활동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계자료입니다. 이 조사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분야별 지원금액, 지원 목적 및 방식, 관련 기업들의 인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2-2021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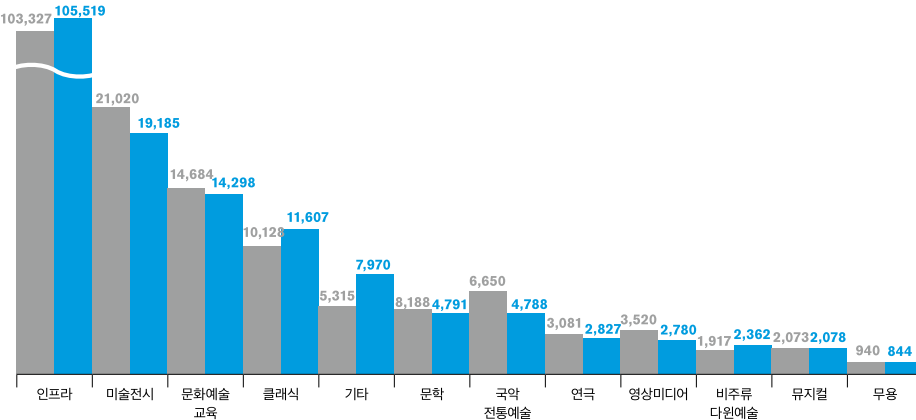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2020년,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단위: 백만 원

■ 2020 ■ 2021



2021 문화예술 지원 상위10개 기업 및 재단

순위	기업명	재단명	순위	기업명	재단명
1	KT&G	삼성문화재단	6	롯데백화점	CJ문화재단
2	현대백화점	롯데문화재단	7	신한카드	현대차 정몽구 재단
3	현대자동차	LG연암문화재단	8	부산은행	대산문화재단
4	DL이앤씨	두산연강재단	9	삼성화재해상보험	KT&G복지재단
5	크라온-해태제과	GS칼텍스재단	10	한화생명	금호문화재단

전국 메세나단체 공동 세미나

2022년에는 '메세나 전국망 사업' 일환으로 한국메세나협회를 비롯한 전국 5개 메세나단체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관련 학술 주제를 선정해 문화예술의 특성과 메세나 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활용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 메세나 활동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 및 후원매개단체(메세나단체)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5:00

장소 |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

Program

기조강연	우리나라 기업 메세나의 확장적 역할을 위한 정책 방안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Session1	ESG경영 시대의 새로운 메세나 활용법, 'ESG+Mecenat'	김효근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Session2	지역예술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서의 메세나	고가연 제주메세나협회 부장
지정토론	민간 예술후원 확대를 위한 '메세나기구'의 발전 방향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장 황애경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사 손수나 경남메세나협회 대리



해외 메세나 사례 조사

한국메세나협회는 국내외 메세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메세나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IT기업의 메세나 활동, 문화다양성 지원 사례, 조사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해외의 메세나 현황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53개의 케이스로 만나는 해외의 메세나'를 E-book으로 제작·배포했습니다.

한국메세나대회

한국메세나협회는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99년부터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보완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메세나대상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한국메세나대회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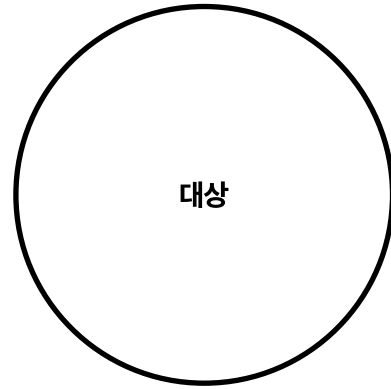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에 장기간 참여하여 모범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 '올해의 베스트 커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HK & 행복나무플러스

행복나무플러스는 국내외 음악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아동보호시설 아동들에게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사각지대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음악인들이 결성한 행복나무플러스는 합창단, 예술교육, 연주회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뜨거운 사랑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아이들의 꿈을 연주하며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절삭기계 기업인 HK(구 한광)는 행복나무플러스의 미션과 사회 공헌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사 단체 설립 초기부터 긴밀히 교류하면서 예술 활동을 후원해 왔습니다. 특히 <HK와 함께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는 2008년부터 15년간 매년 개최되는 콘서트로, 해당 수익금은 아동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장학금과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38명의 대학생들에게 1억 3,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HK와 행복나무플러스는 앞으로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결연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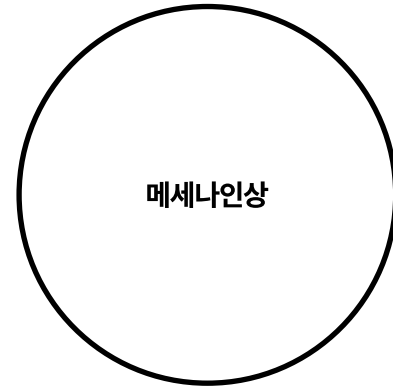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은 2000년 LG아트센터 개관 이후 출연기업인 LG와 함께 22년간 흔들림 없이 공연장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꼭 봐야 할 혁신적인 작품을 시차 없이 소개한다'는 주요 미션 아래 피나 바우쉬, 매튜 본, 로베르 르빠주 등 세계적인 거장들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을 뿐 아니라 양정웅, 이남치, 이자람 등 국내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또한 꾸준히 시도해 지금까지 450만 명의 관객에게 867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초대권 없는 공연장' 선언, 기획공연 시즌제 및 패키지 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시도를 거듭하여 공연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기여했으며, 15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공연장 부문 1위' 자리까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6년부터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지금까지 총 7만 3천여 명의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LG아트센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AR기반 무용 교육, VR 드로잉 교육, 아티스트 토크 등을 제공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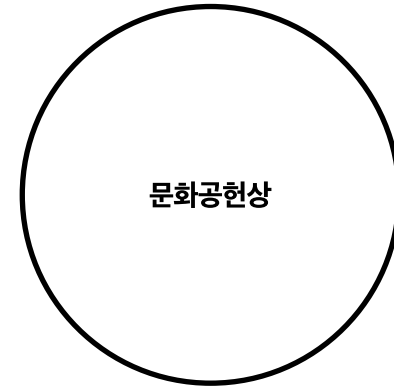
2022 메세나대상 수상 기업

'메세나대상'은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업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메세나 시상제도입니다.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폭넓은 문화공헌 활동을 사회여론에 알리고, 기업들의 메세나 참여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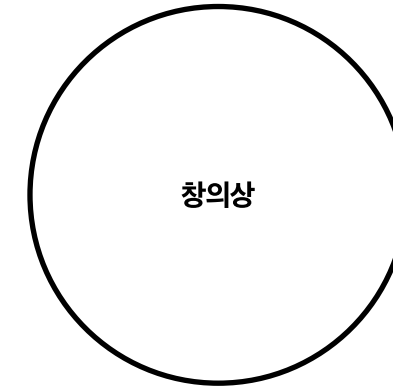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이사

전남 광주의 건설기업인 영무토건의 박헌택 대표이사는 2002년 예술인 지원을 시작으로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공급하며 작가들의 작업실로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스튜디오를 마련해 입주민과 예술인의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또한 광주 구도심의 옛병원 건물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 '김넷과'를 건립해 국내의 작가들의 전시 및 클래식 공연,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 이후 부산과 나주 등지에도 김넷과를 추가 설립하여 지역 예술가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진 음악가들을 위한 '김넷과 트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부터 매년 세 명의 아티스트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주 예술의전당을 건립하며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메세나의 한 축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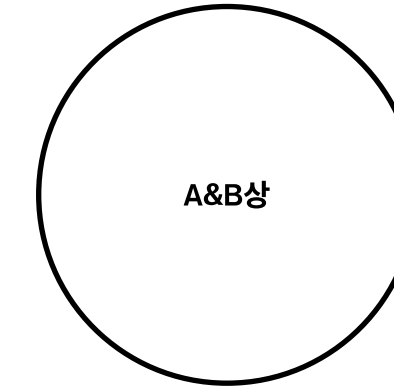
한솔문화재단

한솔문화재단은 1997년 한솔종이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의 소장품 4천여 점을 모아 2013년부터 '뮤지엄 산(museum SA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컬렉션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확대해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뮤지엄 산은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대자연의 품속에서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표방합니다. 종이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페이퍼 갤러리,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청초갤러리, '빛의 예술가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관' 등을 중심으로 종이와 미술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화공모전 개최를 통해 신진 판화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대중의 적극적인 미술관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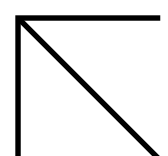
포스코1%나눔재단

2013년에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9년부터 포항과 광양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1%나눔 아트스쿨' 사업을 운영하며 예술을 매개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00여 명의 아동들과 함께했으며 미술, 무용, 문학 등 다각도로 이뤄진 예술 교육은 6,000회에 이릅니다. 또한 포스코 임직원 재능봉사와 연계하여 아동이 창작한 동화책에 임직원의 음성을 녹음한 오디오북을 제작, 이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벽화를 그려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사회의 관심이 지역아동센터에게 향해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상당한 뒷받침을 했다는 평입니다.



정헌재단 & 컬처마케팅그룹

디동일그룹 창업주의 뜻에 따라 1979년에 설립된 정헌재단은 '한국 재즈 음악 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2006년부터 컬처마케팅그룹과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컬처마케팅그룹이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즈 파크(Jazz Park)'는 국내 재즈 음악을 개척한 1세대 연주자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정통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악, 클래식, 힙합 등과의 크로스오버 무대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회 500명 이상이 공연을 찾았으며 2021년까지 약 11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 회원 서비스

회원 음악회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회원사 임직원과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시작된 이래 회원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롯데문화재단의 기부를 통해 롯데콘서트홀에서 한경arte필하모닉과 함께하는 <메세나 희망음악회>를 개최하여 1,0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9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첼리스트 제임스 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와 'Dear My Friends'를 부제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일반 콘서트홀이 아닌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개최하여 220여 명의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울림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메세나 Arts Friends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기업에 파견하여 임직원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2022년에는 총 12회 진행했습니다. 회원사 내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직원들의 창의성 개발 및 직무 교육으로도 활용돼 직원 간 감성나눔, 조직문화 개선 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입니다.

메세나 CEO문화포럼

2012년부터 인문, 사회, 경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회원사에 경영 인사이트 및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조찬행사로 진행하여, 2022년 6월에는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임영익 변호사를 초청해 'Metaverse, NFT and Future Art'를 주제로 한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김윤희 소더비 인스티튜트 코리아 대표가 세계 미술시장의 현황을 시작으로 아시아 현대미술의 주요 트렌드를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A&B포럼

Arts&Business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연기업 및 문화사업 담당자들의 예술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07년 발족된 정보·학술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2022년도에는 2회의 대면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상반기에 더현대 서울 공간탐방 및 전시관람으로 기지개를 켜며 하반기에는 LG아트센터 서울 개관을 기념해 공간투어 및 공연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예술 인프라를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 문화 CSR 담당자 간 양질의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세나 Members Only

회원사 간의 공연, 전시 및 제품에 대한 특별 할인 정보를 공유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세화미술관, OCI미술관, 스페이스K 등에서의 전시를 비롯해 박종해, 양성원, 조진주, 우예노 미치아키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에 대한 할인정보 및 티켓나눔을 제공했습니다.

주간 메세나

한 주간의 주요 언론보도를 선별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뉴스클리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메세나, 문화예술, ESG 등에 대한 기업들의 최신 동향 및 이슈를 압축하여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언론 홍보

메세나 활동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소식 및 회원사 메세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2,200여 건의 기사가 노출됐습니다. '국제음악공쿠르 출전 지원 사업',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홍보를 강화했으며, 특히 매일경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시리즈 기사를 14회 게재하며 주목할 만한 메세나 활동을 소개해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KBS1 '예술의전당' 3회(2022.05.22. 방영)차에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메세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SNS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인스타그램 페이지 도달율(▲59.5%) 및 프로필 방문율(▲88.4%)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유튜브 누적조회수 ▲18%(27,373회) 증가했습니다.

뉴스레터

기업 및 일반 회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Mecenat Zoom In'을 월 1회 발행했습니다. 협회 주요 사업을 비롯해 기업과 협력해 진행하는 문화사업 소식, 해외 메세나 이슈 등을 담았습니다.

간행물

반년간지 《mecenat》는 협회 창립 첫해부터 발행해온 잡지로, 호당 1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메세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함축적이고 심도있는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2022년부터 기존 계간지(연 4회)를 반년간지(연 2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호는 'ESG+메세나'를 주제로 ESG 가치의 핵심을 표현하는 예술과 메세나를 접목한 새로운 경영을 제안했으며, 118호는 세계적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삼은 기업들의 행보를 다룬 스페셜 테마 '비즈니스와 아트페어'를 다루었습니다.

《ESG 실천을 위한 메세나 사용 설명서》를 제작해 기업 임직원 및 문화예술 관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미래와 성장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창의적·선진적 ESG 경영에 유용한 필수 전략으로 메세나와의 연결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각 요소별로 메세나를 활용해 유의미한 성과를 낸 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연차보고서

협회 연간 활동 및 결산을 보고하는 연차보고서를 해마다 발행합니다. 연차보고서는 협회 회원사 및 유관 기업,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반년간지 《mecenat》



《ESG 실천을 위한 메세나 사용 설명서》



2021 연차보고서

Financial Report

재무상태표

과목	(단위: 원)	
	제 29(당)기[2022/01/01 ~ 2022/12/31]	제 28(전)기[2021/01/01 ~ 2021/12/31]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3,751,305,927	3,409,094,291
(1) 당좌자산	3,751,305,927	3,409,094,291
보통예금	3,019,100,567	3,048,347,366
단기금융상품	696,417,480	300,000,000
미수금	29,728,000	46,401,500
선급금	6,059,880	14,345,425
(2) 재고자산	0	0
Ⅱ. 비유동자산	392,390,338	801,161,902
(1) 투자자산	306,754,000	701,065,425
장기금융상품	306,754,000	701,065,425
(2) 유형자산	32,435,338	50,395,477
비품	124,685,400	107,597,900
감가상각누계액	92,250,062	57,202,423
(3) 무형자산	1,000	1,000
상표권	1,000	1,000
(4) 기타비유동자산	53,200,000	49,700,000
임차보증금	53,200,000	49,700,000
자산총계	4,143,696,265	4,210,256,193
부채		
Ⅰ. 유동부채	2,364,225,757	2,473,063,725
미지급금	127,766,574	103,391,292
예수금	40,631,640	37,602,325
부가세예수금	6,700,000	9,089,625
선수금	2,189,127,543	2,322,980,483
Ⅱ. 비유동부채	0	0
부채총계	2,364,225,757	2,473,063,725
순자산		
Ⅰ. 보통순자산	1,779,470,508	1,737,192,468
순자산총계	1,779,470,508	1,737,192,468
부채와 순자산총계	4,143,696,265	4,210,256,193

운영성과표

과목	(단위: 원)	
	제 29(당)기 [2022/01/01 ~ 2022/12/31]	제 28(전)기 [2021/01/01 ~ 2021/12/31]
	금액	금액
1. 수입	16,676,747,804	16,552,846,828
AB사업(국고기금)	3,659,288,930	4,309,962,498
AB사업(기업매칭)	2,406,526,500	2,552,500,000
결연사업	1,317,325,920	1,278,082,000
문화공헌사업	7,916,253,622	7,113,872,930
회비수입	676,500,000	744,300,000
사업협찬금	274,308,800	304,129,400
기타수입	980,000	0
지정후원금	425,564,032	250,000,000
2. 지출	16,658,625,104	16,526,403,160
인건비	792,438,129	786,334,942
직원급여	554,510,366	540,544,159
상여금	141,574,483	153,014,821
퇴직급여	96,353,280	92,775,962
일반관리비	649,337,218	655,142,622
복리후생비	70,274,750	62,561,090
접대비	10,179,500	9,208,500
통신비	21,865,197	25,933,734
세금과공과금	110,643,030	106,494,669
지급임차료	97,088,700	95,854,000
도서인쇄비	64,160,140	96,374,183
행사진행비	110,848,795	128,209,261
지급수수료	29,022,867	26,677,061
회의비	16,174,590	11,266,895
유지보수비	14,737,470	6,854,945
용역비	6,213,405	8,890,320
업무추진비	15,794,500	16,433,090
기타관리비	82,334,274	60,384,874
사업비	15,216,849,757	15,084,925,596
A&B사업비(국고기금)	3,659,288,930	4,309,962,498
A&B사업비(기업매칭)	2,406,526,500	2,552,500,000
기업결연사업비	1,317,325,920	1,278,082,000
문화공헌사업	7,322,752,593	6,651,005,521
기타사업비	85,391,782	43,375,577
지정후원사업	425,564,032	250,000,000
3. 총수익	18,122,700	26,443,668
4. 기타 수입	24,155,340	6,058,216
5. 기타 지출	0	5
6. 당기순이익	42,278,040	32,501,879

본 감사는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의 제29기 사업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입회·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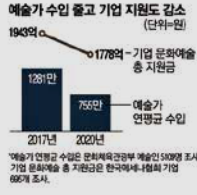
감사 김기균 

감사 윤영석 

Press Release

애플·지멘스의 창조 경영...예술서 나왔다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①
 1월100만원도 못버는 예술가. 생계조차 막막
 1社 1메세나로 소프트웨어 키워야 문화 강국



*기업 문화예술 투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출예산 539억 원 중, 기업 문화예술 총 지원액은 한국예술평의회가 집계한 수치다.

연극 배우 김기영 씨(가명)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대에 선 날이 넉달도 채 되지 않는다. 방역조치로 입장 관객 수가 제한되면서 수익을 내기 힘든 소극장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다. 공연 기회가 줄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 치는 대로 배달과 식당 하드웨어를 하며 버티고 있다.
 ▶ 플랫폼 기사 A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술가들을 고사시킨 까닭과 함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

원을 안 작가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캔버스와 물감 살 돈이 바닥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고단한 예술가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한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지원)를 독려하는 '1사 1메세나' 캠페인을 연중 펼친다. 각 기업이 적어도 한 명의 예술가를 후원하고 협업하자는 취지의 메세나 캠페인은 소프트웨어 중대과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선진국 기업들은 예술가에 대한 산업 투자를 넘어 경영과 예술의 접목을 시도한다. 독일 대표 기업 지멘스는 "디지털 예술 혁신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자사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애플 역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중국 베이징에 설립한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분자는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돕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 조경하는 기획 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국메세나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금 총액은 1778억원으로 전년(2019년)보다 14.6%(약 303억 원) 감소했다. 지원에 참여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28.7% 감소했고, 지원 건수도 33.4% 줄었다. 협회와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과 기업 상하 문화재단 등 총 6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현나·오수현 기자

“한국의 샤넬, 미술서 나와”... 롯데월드타워에 작가 판 깔아준 신동빈

1社 1메세나 시대...문화강국 뒤에 든든한 기업 지원

“한국의 샤넬, 루이비통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나오려면 좋은 현대미술 작가를 지원해야 한다.” 소년미술에 초기인 신동빈 롯데그룹은 2018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7층에 현대미술관인 ‘롯데뮤지엄’을 개관한 후 이듬해부터 국내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디자인이든, 디자이너 브랜드 사담이든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등 당대 최고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창조적 영감을 얻었다. 루이비통 역시 슈프링, 제프 쿤스, 구사카와 야오미, 우라카미 다카시 등 유명 현대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체험 디자인에 반영하며 ‘월링’ 기획을 펼쳤다.

롯데는 올해도 1층을 신보았다. 예술과 신인의 원만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다. 롯데뮤지엄은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후원의 사기대에 놓인 예술 인사와 작가들을 찾아 돕고 후원하는 게 눈에 띈다. 지난해 롯데뮤지엄에서 열린 전시 ‘김정진·다다익시드’가 사회적 영향력 가진 강자였다. 김정은은 한국 대표 미술가인 김홍도와 함께 전시했다. ‘모습이 다른 강자’ 두 인물 앞에서 국내 기업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 생태계는 어떻게 든든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각가들을 후원하는 윤영달 조각재단 대표이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회사 대표이사 미술관으로 꾸민 김영모 달신미술관, 현대미술관 등 두 곳에 후원하는 롯데그룹은 국내 대표 미술가(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라고 했다. 조경예술품 분야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두산아트센터(DAC) 아트스트림’를 통해 작품별로 1억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무대 기술 장비와 연출 장비도 제공하고 현지로 날아가 집을 빌려 작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네트워크

조각가의 작품을 연례에 전한경과 우주2 등과 카드지갑 1층을 신보았다. 예술과 신인의 원만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다. 롯데뮤지엄은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후원의 사기대에 놓인 예술 인사와 작가들을 찾아 돕고 후원하는 게 눈에 띈다. 지난해 롯데뮤지엄에서 열린 전시 ‘김정진·다다익시드’가 사회적 영향력 가진 강자였다. 김정은은 한국 대표 미술가인 김홍도와 함께 전시했다. ‘모습이 다른 강자’ 두 인물 앞에서 국내 기업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 생태계는 어떻게 든든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영모 달신미술관 대표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피카소, 쿠사카와 야오미, 우라카미 다카시 등 유명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연례에 전한경과 우주2 등과 카드지갑 1층을 신보았다. 예술과 신인의 원만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다. 롯데뮤지엄은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후원의 사기대에 놓인 예술 인사와 작가들을 찾아 돕고 후원하는 게 눈에 띈다. 지난해 롯데뮤지엄에서 열린 전시 ‘김정진·다다익시드’가 사회적 영향력 가진 강자였다. 김정은은 한국 대표 미술가인 김홍도와 함께 전시했다. ‘모습이 다른 강자’ 두 인물 앞에서 국내 기업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 생태계는 어떻게 든든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영모 달신미술관 대표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피카소, 쿠사카와 야오미, 우라카미 다카시 등 유명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연례에 전한경과 우주2 등과 카드지갑 1층을 신보았다. 예술과 신인의 원만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다. 롯데뮤지엄은 연간 약 300억원의 규모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후원의 사기대에 놓인 예술 인사와 작가들을 찾아 돕고 후원하는 게 눈에 띈다. 지난해 롯데뮤지엄에서 열린 전시 ‘김정진·다다익시드’가 사회적 영향력 가진 강자였다. 김정은은 한국 대표 미술가인 김홍도와 함께 전시했다. ‘모습이 다른 강자’ 두 인물 앞에서 국내 기업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국 문화 생태계는 어떻게 든든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지원 끊겨 낙담하던 추상화가...다시 붓 들게 한 ‘키다리 아저씨’



김희곤 KIA금융그룹 회장(왼쪽)이 미술 후원활동을 전담할 서울 구로동 사옥에서 작가인식들과 함께 하고 있다. (김소영기자)

김희곤 KIA금융그룹 회장·안성훈 작가 인연
 추상화가 인성은(46)은 지난해 말 정부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지원 사업인 ‘예비 전문직 육성’을 통해 후원을 받았었는데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화환이 전문작가를 후원하면 인성은에게 1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인성은 작가의 계약금은 1000만원, 5000만원 지원받는 제도도 종료되고 전시 기회도 줄었다.
 초조한 나날을 보던 그는 소속 화환인 갤러리조선으로부터 벼락 소서사실을 들었다. 백산엔지니어링이 2022년 부터 3년간 연건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안 작가에게 후원하기로 했다. 김희곤 회장은 “3년 전 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KIA금융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안성훈 작가 인연’을 맺고, 3년 뒤엔 KIA금융그룹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안 작가의 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AF) 주최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문화예술계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키다리 아저씨”다. 소극장 미술관이 1000여 명이 넘는 작가 대표 캠프터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2017년 귀국했다. 모친의 병세가 위중한 가운데 인천문화재단의 일수작가 공모에 선발되면서 귀국을 결심했다.
 안 작가는 “지원 기간 1년이 끝나기 전 새로운 공모에 참여해 작업공간을 새로 확보해야 했다”며 “작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3년간 지원해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한 작업실도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고를 밝혔다.

안 작가는 “작가 입장에서 40~50대는 영생의 보려고 했다. 20~30대에는 창작할 수 있는 이면적인 공모전에 참여한다. 후원자들이 생기면 내게 연락해서 공모전 참가가 불가능하다. 물론 “그나저나 없으면 알아서 먹고살아야 한다. 하지만 문신은 녹색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곤도 안 작가의 말에 동감했다. “신진작가 후에도 중요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에 밝다. 저는 안 작가처럼 작품세계를 확립한 미술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우리 미술이 가야 할 방향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후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나·오수현 기자

“역동적인 바다 그림 작가... 진취적인 우리 회사와 닮아 지원”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②

메트라이프생명 - 진취적 작가 1社 1메세나

추상화가 진취적(46)은 지원 끊어진 시 시구현물카드를 가진 2층에 있었다. 한 끼를 살기 위해 하루 14시간 남지 않는 생활이 계속됐다. 현대 미술관들을 찾기도 하지만 인근 공동 작업실을 전하면서 작가가 20년째 머물렀던 비니스트로도 전업작가 지원이 끊겼다. 김희곤도 안 작가의 말에 동감했다. “신진작가 후에도 중요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에 밝다. 저는 안 작가처럼 작품세계를 확립한 미술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우리 미술이 가야 할 방향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후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나·오수현 기자



지난 11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송정호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와 인성은 작가, 한희원 작가, 최예진 작가, 김희곤(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안성훈(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지원 사업인 ‘예비 전문직 육성’을 통해 후원을 받았었는데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화환이 전문작가를 후원하면 인성은에게 1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인성은 작가의 계약금은 1000만원, 5000만원 지원받는 제도도 종료되고 전시 기회도 줄었다.
 초조한 나날을 보던 그는 소속 화환인 갤러리조선으로부터 벼락 소서사실을 들었다. 백산엔지니어링이 2022년 부터 3년간 연건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안 작가에게 후원하기로 했다. 김희곤 회장은 “3년 전 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KIA금융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안성훈 작가 인연’을 맺고, 3년 뒤엔 KIA금융그룹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안 작가의 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지원 사업인 ‘예비 전문직 육성’을 통해 후원을 받았었는데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화환이 전문작가를 후원하면 인성은에게 1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인성은 작가의 계약금은 1000만원, 5000만원 지원받는 제도도 종료되고 전시 기회도 줄었다.
 초조한 나날을 보던 그는 소속 화환인 갤러리조선으로부터 벼락 소서사실을 들었다. 백산엔지니어링이 2022년 부터 3년간 연건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안 작가에게 후원하기로 했다. 김희곤 회장은 “3년 전 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KIA금융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안성훈 작가 인연’을 맺고, 3년 뒤엔 KIA금융그룹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안 작가의 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지원 사업인 ‘예비 전문직 육성’을 통해 후원을 받았었는데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화환이 전문작가를 후원하면 인성은에게 1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인성은 작가의 계약금은 1000만원, 5000만원 지원받는 제도도 종료되고 전시 기회도 줄었다.
 초조한 나날을 보던 그는 소속 화환인 갤러리조선으로부터 벼락 소서사실을 들었다. 백산엔지니어링이 2022년 부터 3년간 연건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안 작가에게 후원하기로 했다. 김희곤 회장은 “3년 전 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KIA금융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안성훈 작가 인연’을 맺고, 3년 뒤엔 KIA금융그룹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안 작가의 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지원 사업인 ‘예비 전문직 육성’을 통해 후원을 받았었는데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다. 화환이 전문작가를 후원하면 인성은에게 1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인성은 작가의 계약금은 1000만원, 5000만원 지원받는 제도도 종료되고 전시 기회도 줄었다.
 초조한 나날을 보던 그는 소속 화환인 갤러리조선으로부터 벼락 소서사실을 들었다. 백산엔지니어링이 2022년 부터 3년간 연건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안 작가에게 후원하기로 했다. 김희곤 회장은 “3년 전 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KIA금융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고 ‘안성훈 작가 인연’을 맺고, 3년 뒤엔 KIA금융그룹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안 작가의 꿈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세나로 맺어진 인연... 이젠 7년 지기 깎부랍니다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오성정보통신-아카데미 열정과는, 1번1메세나

"자녀에 인사 차 광주에 갔는데 직원 한 분이 '언제 공연하러 오십니까?'라고 묻는다. 굉장한 놀라움이고, 감동이였다. 그들의 생활 속 클래식 음악이 자리잡은 모습이다." (진운일)

"클래식 음악 후원이 대중화 됐다. 예술에 꼭 빠지게 되니 장학금으로 연주자를 돕고, 그림도 사주고 있다. 내가 더 고민은 인연이다." (이단산)

음악이 기업인과 예술가 사이 우정의 표시가 됐다. 21명의 연주자들이 활동하는 현대인 '아카데미 열정과는' (APS) 진운일 음악감독과 이단산 오성정보통신 대표는 7년 전 '1번1'가 됐다. 직업과 나이, 먼 거리조차 극복하고 늘 안부 전화를 나누는 사이이다.

전날 낮에 본사를 둔 오성정보통신은 30년 업력을 자랑하는 인터넷 소프트웨어(IT) 방송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이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지역 거점의 그림 50여 개를 비롯해서 걸 반쯤 '메세나'에 진정한 경영인이 됐다. 이젠 7년 전 인연 덕분이다.

광주 찾이 때부터 나눔음악회 기업 방문에 음악교육하기도 매칭펀드로 연 2000만원 지원

"메세나는 기업에게도 축복... '노블레스오블리주' 도구 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0여 년 전이다. 전 감독이 복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던 시절, 지원의 손길로 공연을 보게 되면서다. APS는 2012년 베를린



이단산 대표 (왼쪽)와 진운일 음악감독



현대인 아카데미 열정과는 이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브경지휘자 진 감독에 의해 창단됐다. "시골에 방송된 문화가 지붕과 나누고 자 한다"는 진 감독의 열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2015년 한국메세나협회 매칭펀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5년간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오성정보통신은 이후 연간 1000만~1500만원씩 후원했고, 정무의 지원금도 같은 액수가 더해졌다. 연간 2000만~3000만원이 수월되면서 매년 초 새나 시드나 교백을 넘기던 악단은 재정적 안정을 찾았다.

진 감독은 "음악 단체에 매칭펀드는 '은연'이나 다름없다. 악단은 매년 위치

이 그룹이 주최하는 "2018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아트&비즈니스 (Art&Business)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나는 지방의 작은 기업인인데 영광스러운 상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았지만 '아트&비즈니스'이 가장 예뻐진다"고 털어놓았다.

클래식 악단에 지난 2년은 악몽 같았다. 코로나19 쇼크로 공연이 몇 번이나 중단됐다. 연 8회 정도 공연을 하던 악단에 매출이 끊어질 위기였다. 테마점 2021년에는 5년까지의 연장으로 지원 가능한 규정상 매칭펀드 지원이 불가능한 시기였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시비 불릴 아픔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APS를 보면 정작이나 연주에 남다른 열정이 느껴진다. 그림 모습 앞에서 보면 당연히 들고 싶다. 편드사업과 상관없이 후원은 이어진다. 10년 이상 일 하는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감독은 "오성정보통신이 지역사회의 경제나 기업에도 확고히 자리 잡고 '노블레스오블리주' (지도축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기를 기쁘게 바란다. 기축과 한 끼 식사를 할 기회도 되고 그런 동기를 부여한 게 회사로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오성정보통신은 매경미

김승기 기자

10년간 청년화가 30명 지원... 한국 현대미술 미래 밝혀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중근당-전현선-장재민 작가 1번1메세나

젊은 날 3년은 미래를 배운 만큼 중요하다. 전현선 작가(33)는 2017년 중근당 예술지상 선정된 뒤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외장을 걷는 느낌에 있는 태 3년간 지원을 받은 덕분에 여유를 갖 고 3m 넘는 데어에도 도전하며 작품을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리움미술관이 6년 만에 재 개하는 신진작가들의 단체인 '아트 스펙트럼'에 회원 작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할 정도로 주목받게 됐다. 이른 아니 다. 2015년 중근당 예술지상 선정 선배인 장재민 작가(38)와 부부의 연도 맺 계였다. 장 작가는 "아이들에게도 작가들이 캔버스(화실) 때문에 무너지는 경 우가 많다. 당시 선정 소식을 듣고 '작 실할 틈에 걱정만 안 해도 되겠다'던 기 억이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는 "3년 간 정말 한 없이 그랬다"며 "대신과 나 사의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대해 나 아하게 심취해 보면서 자꾸 자꾸 표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부 작가는 중근당 예술지상 선정 을 계기로 예술 현장의 모든 변화가 들 만된다. 장 작가는 회고서, 전 작가는 결미라티 연속작가가 됐다.



서울 중근당 본사육 12층에 열린 전현선 작가의 작품 '두개의월' 앞에서 김태영 중근당미술 대표와 전 작가, 장재민 작가, 김노인 이드스메 예술 대표(왼쪽부터)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중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매년 3명의 평면 화와 작가(만 45세 미만)를 선정해 1억 1000만원씩 3년간 총 30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후원하고 마지막 세는 창작 활동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한국메세나협회 부회 장을 맡던 이상현 중근당 회장이 올해 2021년 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예술 공간 '아트스페이스 유'와 손잡고 선정

이 밖에도 중근당은 비우고 고민을 하는 선정 작가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부산현대미술관 등을 후원하는 워크숍을 지원하기도 하고, 2019년 역대 선정 작가전처럼 5년에 한 번씩 단체전을 추기로 하는 등 지원방식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한 작가들을 온라인에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회관계자서비스(SSS) 홍보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준원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메세나 사업은 좋은 뜻으로 시작해라 리도 기업이 경제적으로 활약하면서 예술 지원부터 같이 하도록 이력제인 10년 이상 꾸준해 후원자인 메세나 사례도 손꼽힌다"고 전했다.

중근당 이사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평평상 문제 때문에 1년에 그치는 현실에서 연간기업이 온전한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김태영 중근당미술 대표는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욱 건강하게 만드는 제야 본연의 사명 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야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역 량을 마음껏 펼쳐 한국 현대미술계발 이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는다"고 설명했다. 선정 소식을 전해 들 은 작가들이 한결같이 "지원한 적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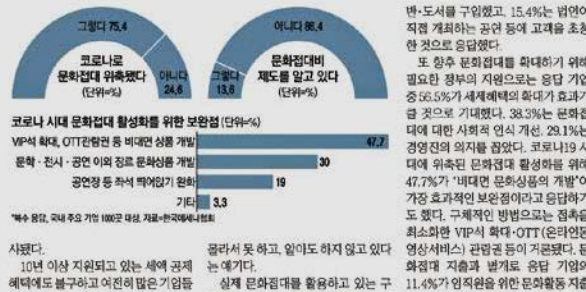
접촉 적은 VIP석·OTT 관람권... 문화로 신년 인사합시다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공연·영화·전시 관람으로 승주 쇠식을 대신하는 문화 송년회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 은 지 오래다. 파란만장 연말을 선사하던 문화 송년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동고동락하는 멤버시 고객들을 위한 문화재단 행사 역시 급감했다.

실제로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 근)가 최근 국내 기업 1000곳을 설문조 사한 결과, 무려 75.4곳 (75.4%)이 코로 나19 확산 이후 문화재단이 위축됐다 고 답했다. 응답 기업 11.6% (1363)만 문화재단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으 며, 이 중에서도 실제 문화재단비를 지 출한 기업은 8.8% (123곳)에 그친 것으 로 나타났다.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기업 형태만 도가 초과할 때 문화재단비를 지출한 금액의 20%까지 비유적으로 추가료 인정 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만·도시를 구입했고, 15.4%는 공연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에 관람권을 제공 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 향후 문화재단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응답 기업 중 56.5%가 세계예매의 확대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38.3%는 문화재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9.1%는 경영진의 의지를 꼽았다.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된 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해 47.7%가 '비대면 문화상품의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촉을 최소화한 VIP석 확대·OTT(온라인연동 영상서비스) 관람권 등이 거명됐다. 문화재단이 지출과 별개로 응답 기업의 11.4%가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출 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평균 지출액은 690만원이었다.

매일경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재단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 나19 한파를 맞은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문화로 신년 인

김승기 기자

"우리 회사 고객들, 아트페어에 VIP로 모셨죠"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부산 화학 소재기업 동성케미칼

최적 소재기업 동성케미칼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기업이다. 신발용 접착제와 수지를 생산하며 부산지역에 산발한 업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최근 들어 동 성케미칼은 과학소재, 전문급 에너지 등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면서 메세나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도 진심을 다 하고 있다.

동성케미칼이 메세나를 하는 대표적 인 방법은 문화재단비 제도를 활용하 는 것이다. 그들이 오랜 기간 후원해온 부산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부산 월드필름포모니오케스트라, 평창대관령 음악제 등에 고객사들 초청하거나 티 냐는 나눔을 해왔다. 2019년 11월 동성케 미칼은 60주년을 기념하여 동성케미칼 60주년 기념 공연 60주년을 기념해 부산문화재단에 11.4%가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활동 지출 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평균 지출액은 690만원이었다.

매일경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재단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 나19 한파를 맞은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로 '문화로 신년 인



동성케미칼은 2019년 왕립 60주년 음악회 '동성 케미칼' 공연을 주최하는 등 1400명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

문화로 신년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사회적 가치 두기 일환으로 하나를 발표하면서 문화로 선행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고 있다.

"문화로 신년 인사"하는 방법은 어렵 지 않다. 미술전시, 클래식, 무용, 국악, 연극, 뮤지컬 등의 관람 티켓 등을 고객사에 선불하면 문화재단비로 인정된다.

기업은 문화재단을 문화 마케팅과 메세나로도 확대할 수 있다. 공연장과 결연해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결연 공 인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거래처를 초청 해 문화재단을 하는 방법도 있다. 비대 면 시대에는 음반과 책을 선물하는 것 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낸 문화 재단 방법이다.

이 밖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을 구입 하는 것도 문화재단비 인정받는다. 기 업들은 소액 미술품까지 문화재단 공 목 을 낼 수 있고, 미술계 입장권을 선물할 수 있다. 스포츠관람권과 영화관람권은 나 람히 38.5%가 활용됐으며, 23.1%는 문

부산 화학 소재기업 동성케미칼 고객사를 아트부산·음악회 초청

합창단어학원, 학생 공연 초대

문화재단비 회사 이미지 좋아져

한송아 축제를 열기도 했다. 병정보 동 성케미칼 회장(사)은 평소의 강조해 온 '문화발'을 지속시키는 사람이 발전하 고, 결국 구성원 개개인이 모여 더 나은 조직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철 학을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공식 후원사로 참여 해온 국제아트페어 '아트부산'이 지난 해 5월 열렸을 때는 고객사에 입장권을 나누고 전시를 관람했다. VIP급 고객 과 협력사는 별도 초청 후 작품을 소개 해 문화 기업 등성의 이미지를 심는 데 노력해왔다.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행사인 동해 고대사(국립)의 친화도도 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다.

김승기 기자

소외아동 방과후 미술수업 동네 예술가들과 함께하죠

포스코1%나눔재단

포항·광양 아동 1100명에
공예·무용·문학 등 가르쳐
고립 아이엔 찾아가는 교육

‘포스코의 도시’인 포항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소셜 아티스트(지역 사회 예술가)’와 함께 방과 후 미술 수업을 한다. 포항 참다운지역아동센터의 박사람 양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셔서 기업 CEO(전문경영인)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양 산들지역아동센터 정아름 양은 “미술 수업이 공동 작업이라 협동심을 배웠고 완성한 뒤에는 뿌듯했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소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미술 수업을 통해 기업 메세나(문화예술후원)에도 환경·책임·투명경영(ESG) 가치를 더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2013년에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 급여 1%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미래 세대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2019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공동 기획한 ‘포스코 1% 나눔 아티스클럽’을 통해 포항·광양 지역 소

외 아동들에게 더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지역 연고의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소통·교육에 참여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한 것이다. 이 예술학교에서는 공예, 무용, 문학, 미술, 사물놀이, 음악놀이, 일러스트레이션, 합창 등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3년 차를 맞은 포스코 1% 나눔 아티스클럽은 지난해 참여 지역아동센터를 80곳으로 늘려 총 2000회 교육을 실시했다. 참여 아동도 전년보다 늘어난 1099명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날 수 없고, 돌봄노동 여력이 부족해 고립된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예술 교육도 다각도로 이뤄졌다. 포스코의 지원은 팬데믹 시대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 예술가에게도 안전망이 될 수 있었다.

재단은 1년여의 교육을 마치면 연말에 벽화 그리기와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종이 공예 강사 노영이 씨는 “아이들은 콩나물 같다. 시루에 물을 부으면 자라난 게 보이듯이 아이들도 예술과 예절을 수업을 통해 배우고 속 자라난 게 보인다. 아이들이 ‘좋아요’, ‘신나요’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말을 해서 정말 기뻐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슬기 기자



포항 미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점자 동화책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메세나협회]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⑦ 신세계-한빛예술단의 10년 동행 스토리



한빛예술단 타악앙상블이 전통 국악의 사물놀이 리듬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한빛예술단]

어둠 속의 연주... ‘키다리 아저씨’ 있었다

단원 40명 전원 시각장애인
2003년 앙상블로 시작해
프로급 연주자단으로 급성장

신세계, 2012년부터 지원
‘메세나 베스트 커플’ 별명도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 도와
‘모든 곡 암보, 경이감 느껴’



한빛명학교에서 만난 이원호 신세계 ESG추진사무국 담당, 김양수 한빛예술단장·한빛명학교장, 천성애 한빛예술단 원장. (박정기 기자)

한빛예술단 첫 출발은 2003년이였다. ‘직지만 의미 깊은 음악을 시작해보자’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들 단원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빛을 제외하고는 알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악보를 읽을 수 없고, 옆 사람 것도 의위야 하니 연주가 고통스럽죠. 안 보이는 사람이 음악을 배운다는 건 행악이예요.” 예술단 설립을 주도했고, 그 자신도 시각장애인인 김양수 한빛예술단장의 회고다.

이제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 뮤직 컴퍼니’를 지향하는 프로 연주자 단체로 변모했다. 그 뒤엔 한빛예술단을 막후에서 지원한 ‘키다리 아저씨’ 신세계가 자리했다. 신세계와 한빛예술단은 ‘메세나계의 베스트 커플’(한국메세나협회)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최근 서울 수유동 한빛명학교에서 만난 김 단장은 “오래전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장애인의 세 활동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선택의 기로는 사실상 안마암 하나였어요. 안마암의 독점적 지위는 그마저도 끊임없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런

데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은 4배나 뛰어난 천적이 있었잖아요. 장애가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음악을 ‘제2의 길’로 선택하자고 독려했죠.” 2005년 세종문화회관 정기공연을 가졌고 공연 횟수는 2009년 100회를 돌파했다.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식, 한·아세안 정상회담 축하 공연에도 ‘한빛’의 이름이 등장했다.

한빛예술단 선배들의 위대한 행보에 음악을 생의 향로로 쓰는 후배도 늘었다. 재작년 맨해튼 음대에 입학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서울대 음대 최초의 전맹(全盲) 시각장애인 입학생으로 화제가 됐던 김상현 등이 모두 ‘한빛’ 출신이다.

단원들과 한자리에서 호흡해 온 천성애 원장은 “예술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매년 연주회마다 실감한다”고 털어놓는다. “한 번은 삶을 등짐까 고민했던 분이 저희 공연을 보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연주자들도 무대에 서는데 비장애인이니 나는 뭐가’ 하는 마음으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요.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에 대한 사랑을 확산하는 게 저희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빛예술단 전(全) 단원은 일반 오케스트라처럼 상당액의 월급을 받는 ‘정직원’이다. 신세계가 오랜 기간 결연하고 힘을 보탤다. 1999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20여 년간 30여 개 사회 직거업을 지원한 신세계에도 한빛예술단은 가장 애착이 가는 예술단으로 남았다. 2012년 첫 인연을 맺은 뒤 올해까지 10년간 정성 어린 후원은 이어졌다.

마침 지난 1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빛예술단 새 음악극을 관람한 이원호 신세계 ESG추진사무국 담당은 “메들린필에서 받은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세종문화회관,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무대에서 신세계는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의 기회 공연을 도왔습니다. 설립 초기엔 시각장애인들에게 새 직업 모델을 제시하며 자립을 지원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눔 문화의 화

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한빛예술단뿐만 아니라 경기문화재단,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100억원가량을 지원해왔다. 천성애 원장은 “한빛예술단이 독보적인 모범 사례가 되다 보니 예술단을 창단하려는 다른 곳에서 먼저 문의를 하기도 한다”며 “단원들의 치열한 노력과 함께 연주자 육성, 정기공연 기회 등 기업 후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빛예술단은 요즘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 앞에 서 있다. 한빛예술단이 직접 모든 멤버를 창작하고 연주하는 음악극 ‘위대한 유산’을 정규 공연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위대한 유산’은 작곡에 눈을 뜬 학생 하름이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동영상이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며 하름은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된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함께하면’ ‘그러면 브라보’ ‘노래가 나를 데려가’ 등 6개의 음악극 멤버는 모두 단원들이 창작한 작품이다.

김양수 단장은 “절대감염이 80%인 단원들에게 생활 소음조차 음계로 들린다. 시각장애는 핸디캡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음악의 길을 가고 있다. 많은 용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담당은 “한빛예술단원들이 모든 곡을 암보(暗譜)하며 이뤄낸 연주는 많은 감동을 준다. 한빛예술단 공연을 통해 많은 분이 감동과 영감을 얻으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유태 기자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 예술 살리며 얻는 기업

경인 WID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메세나(mecenas)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기아우스 마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춘 지난 2년여간 문화예술계 역시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공연·시각·다원예술 등 예술계 피해 규모가 1조5천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메세나는 이뤄졌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계 큰 타격

'기업의 후원' 중요성 더 드러나 지역난방공사 '비대면 공연' 지원

노루메인트, 전시회 개최 현물 도움

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브란차콘서트나 피크콘서트, 마티네콘서트는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들이다. 이러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되면서 공

사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피아노가기로 공연장 문을 열게 되면서 화제성 높았던 공연인 '경기피아노페스티벌', '경기실내악축제',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등을 후원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팬데믹 때 대다수 관람객이 공연 관람 횟수를 줄이고, 입장권 판매로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메세나 후원 등이 있어서 순수 예술공연들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루메인트의 경우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미술관은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 데 페인팅과 같은 재료들이 적지 않게 사용된다. 특히 올해로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양한 규모와 크기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에게 이러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미술관의 생생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직접적인 현물은 물론, 잠재된 문화예술계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기부들이 이어졌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신진작가와 미술 시장 진출을 위한 페르노라기 코리아의 현금 기부부터 전사를 위한 가구 기부, 행사에 쓰는 모욕까지 다양하게 후원을 받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세나는 한정된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문화예술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상생해 나간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한국메세나연회는 "21세기에 문화발전이 없는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화적 품격으로 무장한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에 많은 기업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쿠민주기자 kumi@kyeongin.com

사회공헌·마케팅 전략...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해야

경인 WID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메세나의 지원 형태는 다양하다. 뮤지엄이나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나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후원하기도 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인 '문화이음' 사업이었다. '문화이음'은 기업의 메세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5명이 가입하고 약 62억원이 모금됐다. 이 사업을 통해 뮤지엄 전시는 물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교구·도료 등의 지원, 갤러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던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규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크게 줄었다. 한국메세나연회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기업출연 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천778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14.6% 감소했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한 문화에

기업들, 63.2·27.9%순 이유로 쪼마

코로나로 지원규모 2020년 14.6%↓

佛 메세나법 도입후 총액 3배 늘어

우수기업 발굴 예우 등 노력도 필요

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며 활동이 줄었고, 그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차원의 지원(6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마케팅전략(27.9%), 경영전략(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루메인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들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작가분들 역시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도로·관리기업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메세나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상생 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문

화예술계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고, 문화를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위축되어 있는 메세나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는 물론,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획기적인 세제 지원책이 담긴 메세나법을 도입한 이후 기업의 예술 지원금 총액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세계 인센티브와 같은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예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예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메세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템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후원을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아낸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민주기자 kumi@kyeongin.com



KT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마음을 담은 클래식'에서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 추계예술대 명예교수가 카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술의전당]

13년간 관객 10만명... 클래식 친구로 만들어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⑭

KT-KT심포니오케스트라 1천1백메세나

클래식 음악은 평소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없이 어려운 장르다. 난해한 곡을 듣고 싶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곡을 듣다 보면 비로소 작家的 의도나 연주자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알아채기도 하지만, 방대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에 초심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KT와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마음을 담은 클래식(마음 클래식)'은 임문자자들이 보다 쉽게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연이다.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곡가의 인생과 악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더하면서 초심자는 물론 이미 클래식에 빠진 마니아에게도 관심을 받아 왔다.

지난 3월 '죽음'을 주제로 열린 공연에서도 관객들이 평소 몰랐던 연주곡에

매월 셋째주 금요일 열리는 예술의전당 '마음클래식'서 음악 속 숨겨진 정보 알리며 클래식 선율 듣는 재미 더해 수익금 청각장애 치료 지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첫 곡인 카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를 기다리던 관중들에게 콘서트 가이드로 나선 김용배 추계예술대 명예교수는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관중이 보다 쉽게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연이다.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곡가의 인생과 악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더하면서 초심자는 물론 이미 클래식에 빠진 마니아에게도 관심을 받아 왔다.

"19세기까지 유럽은 국가별로 쓰는 달력이 달랐습니다. 그중 켈트족의 달력은 한 해의 마지막이 10월이었어요.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과 통하는 길에 딱 하루만 열린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귀신이 잡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

은 사람처럼 분장하고 춤을 추게 만든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헬러윈입니다. '죽음의 무도'는 헬러윈의 밤을 그린 앙리 카잘리스의 시를 생상스가 곡으로 만든 겁니다. 죽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곡이죠."

김명예교수는 레퀴엠(진혼곡)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선율 '디에스 이레(Dies irae)'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며 관중들의 귀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디에스 이레'가 등장하는 구간을 스크린으로 알려주며 관중들이 익숙한 멜로디를 스스로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점심 식사 시간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클래식 음악으로 한가득 차려진 상을 마음껏 즐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음 클래식'은 KT가 대중적으로 문화예술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KT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KT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9년 'KT체 임버오케스트라'로 창단돼 13년간 문화 나눔활동을 전개해왔다. 창단 후 서울 양천구 KT제임버홀에서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클래식'을 진행하며 11년간 264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 10만여 명에

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를 통해 KT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4년에는 한국메세나협회 창상을 받았고, 공연 수익금은 KT의 사회공헌 활동인 '소리찾기' 캠페인을 통해 청각 장애인 치료에 쓰였다.

2021년 단체의 규모를 확장해 심포니오케스트라로 재편하면서 무대를 예술의전당으로 옮겼다. '마음 클래식'은 대중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게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 공헌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명예교수는 "기업이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술문화 사업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가이드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KT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문화 나눔을 실현하고자 창단됐다"며 "'마음 클래식'을 통해 대중이 평일 낮 클래식 음악으로 치유와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대의 기자

반클라이번 본선 진출자에 ‘메세나 후원’

오는 6월 열리는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본선에 진출한 4명의 연주자가 출전 지원금을 받았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는 지난 20일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흥기, 박진형, 신창용, 임윤찬에게 후원 증서 및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사업’은 세계 최고 권위의 5개 국제 음악 콩쿠르(바이올린·피아노 2개 부문)에서 본선에 진출한 국내 연주자 중 연간 5명 내외를 선정해 콩쿠르 출전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최



본선 진출자 임윤찬(왼쪽)과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사진 제공=한국메세나협회]

종 3위 이내 입상자에게는 ‘메세나 글로벌 아티스트’ 타이틀을 부여해 기업의 지원까지 연결한다. 김슬기 기자

대기업도 문화 접대비 50% 지원받는다

문화접대비 활성화 사업 메세나협회, 6월부터 접수

문화로 접대하는 기업에 비용의 50%를 되돌려주는 혜택이 찾아온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사업을 시작한다. 2019년부터 매년 진행던 이 사업은 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사업은 지원 대상과 영역을 이전보다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

업, 문화예술후원 인증을 획득한 기업만 참여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이 문화접대비의 50%,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내 문화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내부 직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됐으며,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초과됐더라도 문화접대비에 한해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사업대상 모집은 6월 13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mecenat.or.kr)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슬기 기자



복지·ESG에 밀려 찬밥 신세 ‘메세나’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매경데스크

전지현 문화스포츠투부장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강적을 만났다. 바로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몰아닥친 후 환경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소로 대두되면서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후원)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기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팀이 ESG팀으로 전환되고 예산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에 집중되면서 문화예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ESG 평가 점수가 신용평가와 투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팬데믹 이후 투자자와 고객 요구가 거세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ESG 점수는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지만 문화예술 후원 효과는 쉽게 보이지 않으니 가시적인 성과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 기업 협찬을 받으러 갔다가 “ESG 예산도 부족한데 문화예술에 지원할 돈이 없다”는 냉대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늘었다.

한 공연기획사 대표는 “과거에는 불우 이웃을 돕는 복지 예산에 밀렸는데 이제는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호가 넘을 수 없는 경쟁 상대가 됐다”고 한탄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기업예산이 ESG에 집중되면서 문화예술 후원 활동 뒷전으로 병든 세상 치유하고 화합시키는 메세나도 사회적 책임 중 하나

예산에 더 치중해 문화예술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수차례 문전박대를 당한 공연기획사 직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결식아동, 독거노인에게 공연 볼 기회를 주면 안 되느냐. 문화예술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 문화예술은 팍팍한 삶에 안식을 주며 ‘밥’이 되기도 한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류 콘텐츠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호감도를 높여 수출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1995년부터 다른 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한국 영화에 27년간 2조원을 쏟아부은 CJ ENM이 투자배급한 ‘헤어질 결심’(박찬욱 감독)과 ‘브로커’(송강호 남우주연)는 올해 칸영화제 2관왕을 차지했으며 각각 192개국, 171개국에 판권을 선판매했다. 조만간 두 영화의 개봉 후 흥행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3년 전 투자배급한 영화 ‘기생충’은 2019년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2020년 미국 아카데미 4관왕(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해

205개국에 판권을 수출했다. 영화뿐 아니라 자체 제작한 드라마 한류 덕에 CJ 계열 식품사 제품도 외국에서 그 수혜를 입었다.

정량적인 측정은 어렵지만 문화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환경보호 못지않다. 발달장애인들이 클래식 음악으로 삶의 희망을 찾은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화음으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깬 합창단, 우울증 환자들을 치유하는 미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전에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선 것도 문화예술이다. 2019년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세계 미술계에서는 인류가 지구를 점령하면서 발생한 생태계 파괴 현상 등 환경 오염을 시각예술로 풀어내면서 머지않은 재앙을 경고했다. 일부 설치미술가들은 페타이어와 페플라스트, 버려진 병뚜껑 등으로 작품을 만들어 재생의 필요성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메세나가 ESG를 위해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ESG 요소인 환경보호·사회적책임과 공생의 관계이기에 ESG 평가 항목에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메세나협회와 서울문화재단 등이 “메세나도 ESG”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ESG평가기관과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7월 8일 오후 4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노력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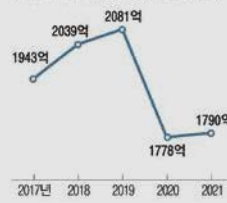
코로나에도 기업 메세나 늘었다

(문화예술 지원)

2021 메세나 상위 기업·재단

순위	기업	재단
1	KT&G	삼성문화재단
2	현대백화점	롯데문화재단
3	현대자동차	LG연암문화재단
4	DL이앤씨	두산연강재단
5	크라운·해태제과	GS칼텍스재단
6	롯데백화점	CJ문화재단
7	신한카드	현대차 정몽구 재단
8	부산은행	대산문화재단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단위: 억)



2021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작년 1790억, 전년비 12억 증가 참여 기업 숫자도 10% 늘어나 KT&G·삼성문화재단 1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까지 겹친 이 중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내 기업의 메세나(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소폭 늘어나고,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건수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5일 발표한 '2021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1790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기업 수는 493개사, 지원 건수는 1051건이었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0.7% (12억 원) 늘었고,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건수 역시 각각 10.3%, 26.4% 증가한 것으

로 집계됐다. 이는 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7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표면적으로는 지원 총액의 증가로 보이지만,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공연장,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등) 운영 침체기를 활용에 재투자한 활동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예술계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가장 높게 집계된 인프라 분야 지원 금액이 약 1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약 22억원)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클래식(약 116억원) 분야는 전년 대비 14.6% 증가했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미술·전시(-8.7%), 문화예술교육(-2.6%), 문학(-7.7%), 국악·전통예술(-28%), 연극(-8.2%), 영상·미디어(-21%), 무용(-10.2%) 분야

의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기업 문화재단의 지원 총액은 1000억6700만원으로 전체 문화예술 지원 금액의 55.9%를 차지하고 비중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움 미술관을 재개관한 삼성문화재단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2위에 오른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콘서트홀·롯데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다. 3위는 LG연암문화재단, 4위는 두산연강재단, 5위는 GS칼텍스재단이 차지했다. 개별 기업이 직접 예술계에 지원한 금액은 789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1억원 감소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서울 송대, 춘천, 논산 등에서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을 운영하는 KT&G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더현대 서울에 복합문화공간인 'ALT.1'을 개관한 현대백화점, 3위는 현대자동차, 4위는 다뮤지엄을 운영하는 DL이앤씨, 5위는 크라운·해태제과가 각각 올랐다. 김소연 기자

메세나협 “문화예술 실질적 지원 줄어”

작년 1790억대...0.7% 늘었지만
코로나 이후 인프라 재투자 집중
예술계 직접 지원 금액은 감소세

국내 기업들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코로나 기간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메세나협회가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1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1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원 총액은 1790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0.7%(12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표면적으로는 지원 총액의 증가로 보이지만, 기업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장·복합문화공간·갤러리 등 인프라 운영 침체기를 활용한 재투자임을 감안하면 예술계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하는 10월 13일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공연의 포스터

피아노 스타 조성진 출연 LG아트센터 개관 공연 초대 → 티켓 판매로 바뀌

내달 1일 홈페이지 통해 판매

“LG아트센터 조성진 초대 공연은 어느 분들이 초대되는 건가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서구 마곡동으로 자리를 옮겨 10월 13일 재개관하는 LG아트센터 서울이 개관 페스티벌 라인업을 공개한 지난 6월, 공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게시글이 잇따랐다. LG아트센터가 개관 무대를 장식할 사이먼 래틀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SO)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을 전석 초대 공연으로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LG아트센터에 초대 자격을 묻는 전화 문의도 쇄도했다.

사정은 이렇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는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단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대표적인 ‘피케팅(피가 튀는 전쟁 같은 티켓팅)’ 공연이다. 조성진은 30일 세종시, 31일 연세대 노천극장 무대에 서며 10월 13일 LG아트센터, 10월 14일 롯데콘서트홀, 10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런던 심포니와의 협연이 예정돼 있다. 이 중 전석 초대로 알려진 LG아트센터 공연과 아직 티켓 예매가 시작되지 않은 서울 예술의전당 일정을 뺀 나머지 공연은 전석 매진된 상태. 이 때문에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조성진 공연 티켓을 원하는 이들의 눈길이 LG아트센터로 쏠린 셈이다.

LG아트센터는 10월 13일 런던 심포니와 조성진의 협연을 판매 공연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유는 “초대권 없는 공연장 운영 원칙 유지”다. LG아트센터는 공연계의 오랜 관행인 초대권 문화를 비꼬는 취지로 2000년 개관 때부터 ‘초대권 없는 공연장’을 선포한 바 있다. 티켓 판매 수입은 한국메세나협회에 기부해 공연예술계의 신진 아티스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현정 LG아트센터 서울 센터장은 “행식을 갖춘 개관식도 의미가 있지만,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들에게 전석 오픈 판매하는 것이 공연장 본연의 목적과 운영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티켓 수입은 기부를 통해 공연 예술 성장 및 발전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래틀과 런던 심포니, 조성진이 함께하는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공연의 티켓은 LG아트센터 서울(www.lgart.com)의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 오후 2시부터 판매된다. 김소연 기자

SPECIAL REPORT **새일은 K클래식 스타**

K클래식 진격, 영재교육 시스템의 승리 ... 신동 넘어 가장 나오려면 공연 생태계 키워야

유우현 기자 yoo@kookilnews.com

지난 세월 미국 및 유럽이던 클래식에서 이제 최전선으로 우상화된 카바리스트 입문한 단상에 발드스타로 일다. 상연가로 화제였다. 그의 경음악 연주 영상은 공개 플랫폼에 유튜브 글로벌 인기 동영상 39위에 올랐고, 지금은 40만뷰를 찍으며 초오비스트 등 최고 초파수들 기록중이다. 미국의 클래식 연주자 '발레리 알리프'는 '발드스타'의 데뷔가 의미 있는 걸까? 알리프는 "발드스타는 13로 한국 출신 음악자에게 연주할 때 이미 무용수 화제였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클래식 기자 '앨프리'는 "발드스타가 클래식 스타 30만 명도 생겼다."



클래식 공연의 열정적인 모습.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발드스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클래식 연주자 중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다. 그의 연주 영상은 유튜브에서 39위에 올랐고, 지금은 40만뷰를 찍으며 초오비스트 등 최고 초파수들 기록중이다. 미국의 클래식 연주자 '발레리 알리프'는 '발드스타'의 데뷔가 의미 있는 걸까? 알리프는 "발드스타는 13로 한국 출신 음악자에게 연주할 때 이미 무용수 화제였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클래식 기자 '앨프리'는 "발드스타가 클래식 스타 30만 명도 생겼다."

클래식 시장은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클래식 시장은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시장은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데뷔 7년 후에도 '클래식 스타'로 불리는 발드스타는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데뷔 7년 후에도 '클래식 스타'로 불리는 발드스타는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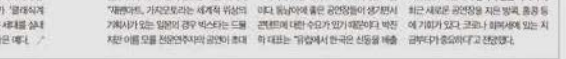
공연 시장 클래식 비중 1년 새 4배 급성장, 피켓팅·조공 문화 등 팬덤도 생겨

공연 시장은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2022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주요 국제 음악콩쿠르 수상 현황(200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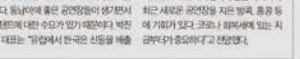
Table showing the number of winners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t major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 from 2009 to 2022. The table lists various competitions and the number of winners in different categories.

2022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2022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연수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클래식 공연 연수는 2022년 상반기 6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상반기 공연 연수 통계'에 따르면이다.



기고 김희근 한국예술단체협회 회장

기업 후원 늘리려면 '메세나법' 개정부터

기하거나 투자, 스타를 접하며 근근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695만원에 불과하다.

끝나지 않는 ‘임윤찬 신드롬’... 메세나, K아트 이끈다

지난 6월 18일 밤 미국에서 남보가 남아있었다.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보르외스 베이스 파포넬스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경연대회인 제16회 '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이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었다. 2017년 제15회 대회에서 선우예권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둔 후 언어는 한국인 우승자였다. '클래식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위상을 높인 사건이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지난 6월 17일 텍사스 메이스 파포넬스에서 열린 앤 클라이번 콩쿠르 결승 무대에서 콩쿠르 심사위원장인 마린 알프스의 지휘로 보르외스 베이스 파포넬스에서 연주하고 있다. (사진제공=클라이번 재단)

이 콩쿠르에서 긴 메리를 휘날리며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리호마니노프를 연주하는 모습은 윤찬이 불타나게 팔리고 공연 티켓을 순식간에 매진시키는 폭발적인 '임윤찬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임윤찬의 우승에는 커다라 이치세가 있었다. 현대지정콩쿠르 재단의 지원을 받는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를, 2020년부터 재단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임윤찬은 문화예술 분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현대지정콩쿠르 재단의 차세대 문화예술 리더 중 한 명으로 2020년 예원학교 수석 졸업 후 스텔림을 한 때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후 지금까지도 레슨과 연주활동 등에는 경례를 휴전하며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단대의 '신곡'과 유재하를 좋아하는, 나이답지 않게 성숙한 예술가의 탄생에는 보이지 않는 기업도 들어 있었다.

2010년부터 문화예술 후원을 시작한 이 재단의 메세나 활동 덕분에 지난 5월 위생현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오른 바이올리니스트 위재현, 작년 제2회 메세나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첼리스트 한재민, 경기도 무용가협회 회원으로 선정된 최고 신인 무용수 어유원,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파리발레단에 입단한 유서우, 올해 고졸로바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은 김서연 등의 예술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11월 들어서도 남보가 이어졌다. 11월 13일 피아니스트 이혁(22)도 프랑스 파리 사블레극장에서 열린 톨티보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결선에서 1위에 올랐다. 이 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 연주자가 우승한 것은 2001년 임동현 이후 21년 만이다. 만 12세 나이로 국제 청소년 소콩콩무르의 최연소 수상 기록을 갈아치운 예술 영재였던 이혁의 성과 뒤에는 두산연간재단의 보이지 않는 후원이 있었다. 두산연간재단은 이혁뿐 아니라 각콩콩무르 대회에서 입상한 것들을 여겨본 끝에 장학금을 비롯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준 바 있다.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 우승
佛 톨티보콩쿠르 공동1위 이혁
첼로 신동 한재민 등 잇단 남보

기업들 팬데믹·경기 침체에도
예술후원 지속해 공니무 '축축'
정부 손수예술 지원책도 절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예술가들의 활약이 계속된 것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메세나 지원이 한국 예술계에 지원으로 작용한 결과다.

수상기업 이렇게 뽑았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 메세나협회가 함께 선정하는 '한국메세나대상'은 1999년부터 국내 기업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로 기여한 기업을 뽑아 수상하고 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메세나대상은 우리-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 기업인을 발굴해 공로를 시상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제22회 메세나대상 후보 기업 심사 기준으로는 공연도, 지속성, 대상 계층의 다양성, 문화 발전 애쓰 여부 등 네 가지 채택에 더해 관객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메세나'를 넘어 '기여'라는 말을 꺼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속적인 후원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메세나(Mecenat)란 고대 로마제국 정치가로 문예 보에 크게 공헌한 마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이나 지원자란 의미의 프랑스어로 계승돼 널리 쓰이고 있다. 오늘날 메세나 활동은 국내 기업의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까지 걸친 이중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내 기업의 메세나(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소폭 늘어나고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1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전년 대비 0.7% (12억원) 늘어났다. 지원 기업 수는 493개, 지원 금액은 1061만여 원, 지원 기업 수의 지원 건수 역시 각각 10.3%,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표면적으로는 지원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코로나19를 기회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공연장·복합문화 공간·갤러리 등) 운영 체계가 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기 기자

'믿고 보는' LG아트센터... 초대권 없는 공연장 명성

대상 /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은 LG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선진 공연문화 구축과 미래 인재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은 2000년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최첨단 다목적 공연장인 LG아트센터를 열었다. 그 후 약 22년간 1573억원의 공연장 운영에 지출했다. 그 결과 LG아트센터는 차별화된 공연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혁신적으로 운영한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됐다. LG연암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새로운 공연장을 세우기 시작했고, 총공사비 2556억원을 투입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지난 10월 개관했다.

매우 본 등 세계적 거장부터 이자람 판소리 공연까지 22년간 총 867편 작품 선배 동유럽·남미작품도 소개 기획공연 시즌제 등 통해 관객 데이터 과학적 분석도

공연계 페르다임을 바꾼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즌제는 1년간 공연 프로그램 라인업을 관객에게 한 번에 공개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패키지 제도는 시즌제를 통해 공개된 공연을 관객 희망대로 무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2가지 제도를 도입한 뒤 LG아트센터에는 미리 한 해 관람 계획을 세우고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좌석을 선점하는 관객들이 많아졌다.

LG아트센터 역시 미리 판매한 표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 추이를 예측해 공연별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현재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등 국내 주요 공연장 대부분이 시즌제와 패키지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공연계에 없던 '장기 대관' 역시 LG아트센터가 도입했다. 2000년대 초반 뮤지컬 공연 기간은 길어야 1~2개월이었다. 미국·영국 등에서 흥행했던 '오페라의 유령' 역시 높은 제작비 때문에 3개월 이상 장기 공연을 보지 않을 공연장이 필요했다. 당시 신생 극장에 불과했던 LG아트센터는 '오페라의 유령'에 9개월을 대관했다. 2001년 12월 개막한 오페라의 유령은 7개월이던 공연기간 동안 비전으로 제작됐다. 서재원 연출의 '더 크리스: 오이디푸스' 역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오를랜드 페스티벌에 진출해 해외 관객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이자람의 '역행기'는 전 세계 10여개 도시에서 순회공연하며 한국 판소리 불을 날려 보냈다.

LG연암문화재단은 또 국내 최초로 '초대권 없는 공연장'을 선언했다. 모든 기획 공연에 초대권 발행을 금지한 것이다. LG그룹 사장인 이(故) 구본무의 장도 직접 표를 구매해 작품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런 LG아트센터 정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국립극장 예술기획 초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사태를 겪으며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 공헌이라는 큰 뜻 아래 LG는 LG연암문화재단과 LG아트센터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세하 기자



LG아트센터 공연 중인 배우들의 모습.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의 고천 발레'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해석해 인기를 끌었다.

(사진제공=LG연암문화재단)

"마곡시대 새 장 열어... 예술로 관객과 호흡"

양재훈 LG공역재단 대표



"다양하고 차별적인 문화예술 서비스와 기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메세나 대상을 받은 LG연암문화재단의 양재훈 LG공역재단 대표는 수상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양 대표는 "22년 동안 LG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걸음씩이 커져온 점이 있다면 바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운영이념과 출연기업 LG의 안정적 지원이 바탕이었던 LG아트센터는 '초대권 없는 공연장' 선언, 기획공연 시즌제와 패키지 제도 도입 등 국내 최초의 시도로 만들어 갔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특히 어려운 공연 환경 속에서도 LG아트센터가 꾸준한 운영을 가능케 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립극장 공연장과는 달리 민간 공연장은 모기업의 경영 상황이 곧 경제적인 리스크에 직면하는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LG의 안정적인 지원이 바탕이었던 LG아트센터는 '초대권 없는 공연장' 선언, 기획공연 시즌제와 패키지 제도 도입 등 국내 최초의 시도로 만들어 갔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을 새로운 공연 예술 랜드마크(명소)로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문화하고, 문화 공연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특히 LG아트센터 서울의 목표로 '동시대성'과 '확장성' '협업'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동시대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공연장 지평을 넓히고 관객에게 새로운 공연을 선사하는 많은 관객에게 새롭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

LG아트센터 서울은

이후에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감동을 표현하는 건축가다. 그는 1995년 '건축의 노블리스'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총 4년 6개월을 건설했고 무인입장 비용만 2556억원에 달한다. 마곡지역의 중심인 서울신원내 내 약 3000번(약 9600㎡) 대지 위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다.

LG아트센터 서울은 푸르드와 스타프리로, 게이브 이크 등 3가지 콘셉트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건물 지상층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터널형 통로인 '유브'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1335



석 규모 다목적 공연장 'LG 시그니처 홀'과 기념품 플래틱스 '유클리드 스테이지' 등 공연장 2곳이 자리 잡았다. 리 허설을 2개의 스피어를 3개, 스튜디오 1개 홀도 있다.

공원과 광장으로 연결되는 푸르드 지상의 관객들을 전용 도로로 끌어들이

여 LG아트센터 서울이 예술과 과학, 자연이 융합된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LG연암문화재단에서 운영 하는 'LG디스커버리'도 있는데, 이 곳에서는 LG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AI 교육을 제공한다.

이세하 기자

외파로 옳갓하게... 강윈도 산골에 '예술섬'이 피었습니다

문화공헌상 / 한술문화재단
원주시 복합문화공간 '뮤지엄 산'
故 이인희 고문 소장품모아 설립
거장 안도 다다오 설계한 건축물
예술과 자연이 조화 이루며 매력
관화작가 활동 지원·작가들 조명
"한국 미술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



한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뮤지엄 산' 전경

"2022 매세나 대상"에서 문화공헌상을 받은 한술문화재단은 강원도 원주시에 복합문화공간 '뮤지엄 산(Museum SAN)'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65년 설립된 한술문화재단은 1997년 한술중앙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고(故) 이인희 한술그룹 고문·소장품 4000여 점을 모아 2013년 '뮤지엄 산'을 설립했다.

강원도 원주시 오르벨리 안에 있는 '뮤지엄 산'은 건축 대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옹근으로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100선'에 5회 연속 올랐으며, 추천 엘니스 관광지예 2회 연속 선정됐고, 2022 연신관광지예 2회 연속 선정됐다.

연간 2만명이 방문하는 매표소 자리 잡은 '뮤지엄 산'은 개인이 완벽성을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확대해 누구나 질 높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공헌했다. 2022 연신관광지예 2회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뮤지엄 산'을 개인이 완벽성을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확대해 누구나 질 높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공헌했다. 2022 연신관광지예 2회 연속 선정됐다.

이베라갤러리 등을 운영하며 종이와 미술의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술문화재단은 우수한 관화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한다. 다소 정제되어 있는 국내 관화예술을 부흥시켜 관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뮤지엄 산'에 위치한 관화공방은 관화 작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며, 관화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관화공모전을 통해 전통 관화의 위주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관화 작가들을 선발하여 소개해왔다.

2017년 1회 관화공모전 때에는 임지혜, 홍윤, 김혜나, 한지민, 김서울, 이하나(6명)를 당선시켰다. 2019년 2회에는 권오선, 나영호, 이연

정, 정예경(4명)을, 2021년 3회에는 이삼미, 곽태일, 이원숙(3명)을 선발했다. 한술문화재단은 관화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관화 작가들에게 '뮤지엄 산'의 관화공방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가와 함께 하는 다양한 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반 대중에게 관화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미술을 알리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세나협회 심사위원들은 "뮤지엄 산"이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관화 작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지성 기자**

장, 정예경(4명)을, 2021년 3회에는 이삼미, 곽태일, 이원숙(3명)을 선발했다. 한술문화재단은 관화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관화 작가들에게 '뮤지엄 산'의 관화공방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가와 함께 하는 다양한 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반 대중에게 관화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미술을 알리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련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세나협회 심사위원들은 "뮤지엄 산"이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관화 작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지성 기자**

**모두를 위한 감성과 공감
종이에 물들어듯 전하죠
조동길 한술문화재단 이사장**

조동길 한술문화재단 이사장(한술그룹 회장)은 "우리 세대의 문화예술 확산 노력과 '뮤지엄 산'의 열매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매세나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뮤지엄 산'은 2013년 개관 첫째 임종석 6만500명으로 시작된 현재는 24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뮤지엄 산(Museum SAN)'은 Sapce(공간), Art(예술), Nature(자연)의 첫 글자를 따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을 상징한다.



조동길 한술문화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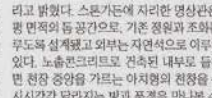
종이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고자. 단순히 모는 뮤지엄에 그치지 않고 죽어 속에서 재형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공간을 지향해 왔다. 조 이사장은 "아려한 지평 가치는 전시뿐만 아니라 공간 경험과 문화 행사, 프로그램 등에도 반영돼 관람객에게 인문학적 감성, 자연과의 공감을 통한 감수성을 종이에 물들어듯 전하는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뮤지엄 산" 미술관 전시장의 명칭은 철조(鐵鳥)를 의미하며, 그 이전의 이사장이 평생 모은 수집품을 기반으로 건립돼 고인의 후인 정조를 이듬해 반영했다. 특히 '뮤지엄 산'은 모기업인 한술제지와 관련한 종이 유품과 20대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회화와 판화, 드로잉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뮤지엄 산'의 소장품은 매년 '한국 미술의 신채' 시리즈로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 현재는 서양화, 단색화, 조각, 산수화, 추상화, 판화, 구성회화에서 이은 예술 번째 소장품 전시로 '한국 미술의 신채8: 꿈'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관화 작가 공모전은 뮤지엄 산을 대표하는 예술 지원 사업이다. 조 이사장은 "관화 예술 지원에 애정을 보이고 사업에 열매는준 작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2022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뮤지엄 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4회 관화 작가 공모전'에 새롭게 선발된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및 관계 참여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술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지성 기자**

미술관, 대중 곁으로... 8년간 120여명 '시민 도슨트' 육성

**명상관 개관해 헬니스관광 선도
지역 소외계층에 문화체험 기회**

한술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대중의 미술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뮤지엄 산'에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뮤지엄 산의 건축·소장품 이해를 위한 미술사 강의와 도슨트 직무 이해, 스피치 실용 체험을 할 수 있는 커피를담을 기획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의 도슨트와 정밀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뮤지엄 산'의 건축·소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화의 향유를 증진시키고 있다. 현재는 '뮤지엄 산'의 건축·소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화의 향유를 증진시키고 있다. 현재는 '뮤지엄 산'의 건축·소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화의 향유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와 또 커피를담을 이수한 수료자는 '뮤지엄 산'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7기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약 120명이 참여했다. 한술문화재단은 2019년 '뮤지엄 산'에 명상관을 개관하며 국내의 헬니스 관광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관 5주년 기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명상관은 풍부한 감성과 깊은 휴식공간으로서 미술관이 있고 있는 명상적인 힘을 새로운 공간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연정주 뮤지엄 산 관장은 "2018년 개관 5주년이 되는 시점에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로서 '뮤지엄 산'의 건축·소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화의 향유를 증진시키고 있다. 현재는 '뮤지엄 산'의 건축·소장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화의 향유를 증진시키고 있다."



뮤지엄 산 명상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펼치고 있다. 강원도와 문화예술 소외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시 관람과 관화 체험을 제공하고, 강원도청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제언 기회를 만들고 있다. **창지성 기자**



뮤지엄 산 명상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펼치고 있다. 강원도와 문화예술 소외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시 관람과 관화 체험을 제공하고, 강원도청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제언 기회를 만들고 있다. **창지성 기자**

체험·소통 활동으로 지역 어린이들 '건강한 성장' 지원

창의성 / 포스코1%나눔재단
아동센터 80곳 1800명
공예·무용활동 '무럭무럭'
태풍피해 주민·직업들에게
응원메시지 그림 전달도



포스코1%나눔재단이 운영하는 '1%나눔아트스쿨'은 공예, 무용, 미술, 문학, 음악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인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과 광양 지역 아동센터 80곳 1800여명 아동에게 지난 4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운영하는 '1%나눔아트스쿨'은 공예, 무용, 미술,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아동들이 직접 선택해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적인 문화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며 그 해결 방법을 예술을 통해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바지로서의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대안하며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동 교육과 예술에 관심이 많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38명의 예술강사를 선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강사들에게 활동 기회를 보장했다. 또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해 대정방만 수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한 예술강사들의 역할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행사 발달을 지원하여 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회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시작됐다.

한 지역주민들과 포항제철소 직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직접 그려 선물하며 훈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포항·광양 포스코 임직원 재능 봉사단과 1%나눔아트스쿨 아동들과 협업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아동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로 동화책을 제작하면 포스코 굿보이스 봉사단(사회적공헌을 위한 상주 봉사단)은 해당 동화책을 음성 녹음해 오디오북을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오디오북은 지역 내 시가지에인북자관에 기부돼 아이들에게 예술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가치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나눔아트스쿨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뿐 아니라 문화·포항과 전남 광양 지역 예술강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아동 교육과 예술에 관심이 많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38명의 예술강사를 선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강사들에게 활동 기회를 보장했다. 또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해 대정방만 수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한 예술강사들의 역할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행사 발달을 지원하여 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회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시작됐다.

무엇보다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면 이익 같은 금액을 매칭 프로그램에 운영하여 포스코1%나눔재단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연말마다 기부자들이 직접 기부자를 추천해 기부하는 '1%리틀(My Little Charity)' 릴 운영하며 해마다 온라인으로 하는 첫 기부금 직접 실천에 오고 있다. 그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사업은 미래 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형태로 세제나 국가공헌"도 강조했다. "최고수 이사장의 이러한 생각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도 이어지게 추진되고 있다. 2023년이면 포스코1%나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고도화하고 1%기부를 넘어 임직원 개인의 재능과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찬우 기자**

**나눔 가치 확산 통해 더 나은 세상에 기여
최정우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



"노적성(積善成德)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아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1%의 가치를 담아야 의미가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우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포스코그룹 회장)은 한국계세나협회에서 주최한 2022 한국·매세나대상 개최를 축하하며 미래 세대 아동·청소년들의 예술 교육과 나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1%나눔재단의 활동을 인정해 준 매세나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 이사장은 2018년 "다들 어떻게 발전하는 기업사만은 포스코의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사회공헌체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적극적이 행동하겠습니다." 무언고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면 이익 같은 금액을 매칭 프로그램에 운영하여 포스코1%나눔재단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연말마다 기부자들이 직접 기부자를 추천해 기부하는 '1%리틀(My Little Charity)' 릴 운영하며 해마다 온라인으로 하는 첫 기부금 직접 실천에 오고 있다. 그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사업은 미래 세대, 다문화, 장애인, 문화예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형태로 세제나 국가공헌"도 강조했다. "최고수 이사장의 이러한 생각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도 이어지게 추진되고 있다. 2023년이면 포스코1%나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고도화하고 1%기부를 넘어 임직원 개인의 재능과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찬우 기자**



세대를 잇는 작업 '아름다운 전시장 모습'

무형문화재와 디자이너의 협업... 세대를 잇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보존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단행 위기에 처한 금속공예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사업부터 시작했다. 금속공예 분야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존될 수 있도록 전통 공예 장인과 현대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신규 문화 상품 개발하고 그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포스코미술관' 전시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포항지역 아동센터 아동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계층 해소하며 음악적 소질을 발굴 지원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포항지역 아동센터 아동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계층 해소하며 음악적 소질을 발굴 지원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 소외계층 해소하며 음악적 소질을 발굴 지원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포항지역 아동센터 아동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계층 해소하며 음악적 소질을 발굴 지원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문화 소외계층 해소하며 음악적 소질을 발굴 지원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포항지역 아동센터 아동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계층 해소하며 음악적 소질을 발굴 지원했다. 음악적 감각 키워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합창, 민요 수업 등 27개의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연구회를 개최했다. 또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수업 강사와 단체로 대대, 연주회 등 프로그램 전반의 모든 비용도 담당해 오고 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는 2014년부터 4년간 문화청공단지, 공영주립단체전국사업단지위주 총 16회 공연을 진행해 누적 관객 5100명에 달하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메세나인상 /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

“광주는 예술의 도시… 문화사랑방 ‘김넷과’로 오세요”

구도심 옛 병원 건물 사들이 미술 전시·공연 무대 탐바공 전세대 초월한 소통공간으로 청년 예술인 후원 역할 지역 아파트 내 작업실 제공도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이사

“중앙년총과 젊은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예술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LIVE ART” (생활 속 예술을 실천한다) 라는 모토에 따라 지난 2017년 광주에서 “김넷과”로 대표되는 메세나 활동용 별채는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이사(88)의 열정과 열의와 지역 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광주는 예부터 예향(藝鄕)으로, 그리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현상으로 지역 예술이 위축된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광주와 도속 건설기업인 영무토건의 박헌택 회장은 문화예술의 가치 찬 예술의 도시 광주를 꿈꾸며 메세나 활동을 시작하였다.

박 회장은 “사람에 어려움이 있어도 메세나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예술인이 오롯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회사 설립과 함께 ‘다움봉사단’을 창단한 그는 직원들과 함께 소통·계승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한 데 이어 2022년 예술인 지원용 사무소로 작업실을 위한 창고(210평)를 마련해 입주한다. 예술인의 소통 장구를 펼치게 되었다.

2021년 대전시청 작가 후원 2000원 광주 수월지구 아파트 내 작가 레지던스 설치, 아파트 건문주에 지역 작가 작품 전시 등으로 메세나 활동의 성과를 넓혀왔다. 작가 레지던스는 광주 구도

심 3층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해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 것이고, 건물주에 작품 전시는 2020년 시대구KTX 영무메아루 건문주택을 개관하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매 운동도 함께 펼친 활동이다.

특히 2017년 시대를 충언해 광주 동구 대안동에 북한문화공간 ‘김넷과’를 설립한 뒤 시구 앙동과 지원동에 각각 ‘김넷과’ ‘김넷과’를, 나주혁신도시 스페리얼 내 ‘나주 예술의전당 (NAC)’을 설립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



박헌택 대표이사(왼쪽)가 광주직예전시공간인 ‘김넷과’에서 작가와 함께 모임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영무토건)

했다”고 설명했다. 옛 병원에 등지를 큰 김넷과는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 오아시스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의 작가들이 미술을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운영, 인문학 강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부산, 나주 등에도 김넷과를 설립해 누구나 편하게 문화를 즐기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 후원과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주고 있다. 아울러 지역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이끄는 작가 작품 전시 등 문화창작영업을 후원하는 문화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신진 음악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김넷과 브라운리 모델링’ 기획을 2019년부터 매년 아트스트 3명을 선정해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박 회장은 “매월 활동지원금과 콘서트장소 지원을 하는 김넷과 ART 콘서트는 지금까지 29차례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사회의 힘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박 회장은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개막 지원금 1억원을 지원했고, 광주 문화재단 문화예술기부금 메세나사업도 3000만원을 기부했다. 박헌택 기자

메세나 역대 수상 기업	
대상	C.문화재단
문화공헌상	KT&G
메세나인상	세원MS 정음열 회장
문화경영상	한국전력공사
창의상	CK지과병원
Arts & Business상	삼양식품기공&극단팩트 스타카토리아&서울뮤지컬발전회
대상	대원상영
문화공헌상	하나금융지주
메세나인상	백산연지니여담 김희근 회장
문화경영상	신한카드
창의상	두산인강재단
Arts & Business상	삼도&.서단법인체육과
대상	현대자동차
문화공헌상	아모레퍼미픽
메세나인상	LG화학재단 구자홍 이사장
문화경영상	경남은행
창의상	유진금융
Arts & Business상	대원산업&생활용품과공공
대상	CS문화재단
문화공헌상	크라운&엘리움
메세나인상	무한건설(주) 홍근 회장
문화경영상	글로벌이노비티 주식회사
창의상	생로직물 주식회사
Arts & Business상	KT엔플&극단 바넷
대상	대원문화재단
문화공헌상	중소기업은행 (KBK기업은행)
메세나인상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
창의상	KT
Arts & Business상	엘앤씨빌드&고&엔터테인먼트
대상	(주)KT&G
문화공헌상	내이퍼문화재단
메세나인상	J&F 김경수 회장
문화경영상	백산문화재단
창의상	올원푸드한국(주)
Arts & Business상	한국경제(주) & 한국조각가협회 청년지원
대상	현대차정통구재단
문화공헌상	중외화학복지재단
메세나인상	크라운해태제과 운영실 회장
창의상	케이유션
Arts & Business상	대창스틸 & 서울메트로음악재단
대상	C.문화재단
문화공헌상	한성자동차(주)
메세나인상	고요음 미술회 회장
창의상	한국남농협(주)
Arts & Business상	조금유한&술오래재단
대상	유스익텐
문화공헌상	LG생활건강
메세나인상	동성프미케이션 박정호 회장
Arts & Business상	에이치케이(H&K) 오정봉최봉선&아카데미 올칭과 나눔
대상	부산은행
문화공헌상	한화생명보험
메세나인상	엑스컴피티(주)윤재 회장
창의상	한미약품
Arts & Business상	힐스나이어&세계문화재단
대상	한국전력공사
문화공헌상	신한카드
메세나인상	노후소득 향양재단 회장
창의상	현대백화점
Arts & Business상	에스스기&공화국제도로오케라단
대상	아모레퍼미픽
문화공헌상	KT&G문화재단
메세나인상	영진약품(주) 이철호 이사장
창의상	한화손해보험
Arts & Business상	삼성SO&허브&에버트재단

Arts&Business상 / 정현재단·컬처마케팅그룹

20년간 ‘1000원의 행복’ 재즈공연… 연주자에겐 단비

국내 유일 재즈 정기콘서트 ‘재즈파크’ 섬유센터서 열려 바주류 음악 편견 해소하고 젊은 뮤지션 공연기회 제공 전회차 누적 관객만 11만명

국내 유일의 재즈 정기공연인 ‘재즈파크(Jazz Park)’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빌딩 3층 아트홀에서 매월 셋째 목요일에는 이 공연이 열리는데 입장료가 1000원으로 누구나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재즈파크’ 20주년 기념 공연에서 뮤지션 윤상민이 노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컬처마케팅그룹)

예제 공연 기회를 제공하며 정동심을 유지하는 한편 국악, 합창, 미술 등과 크로스오버 무대도 선보이고 있다. 재즈 뮤지션은 무대가 재즈 음악이 흐르는 아름다운 여공간을 장식했다. ‘재즈파크’ 공연은 무대에 설 기회가 적은 재즈 연주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다량예매 장려한 재즈의 활성화와 공연을 위한 관객을 늘리고 공연장 운영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건강성 있는 공연 생태계 손잡았다.

컬처마케팅그룹의 ‘재즈파크’는 국내 재즈 음악을 개척한 1세대 연주자들

자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공연이었다. 1990년대 미 8군에 젊은 재즈 음악가들과 재즈 뮤지션들이 60대 되어서야 가끔 클럽하우스에서 연주해오던 실정으로서로 소개되었다. 2004년까지 이들의 연주를 주로 선보이던 재즈파크는 예매로부터 30~40대 젊은 재즈 뮤지션과 밴드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재즈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현숙, 정재민, 박보, 윤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이 무대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유일, 신효범 등 유명

가수의 협연에 나서기도 했다. 최석이 오지자 100명 이상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재즈파크’는 20년째 분란하는 벼랑 끝에 ‘메세나’를 접한다. 정현재단은 ‘한국 재즈 음악 발전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하여 2005년부터 컬처마케팅그룹과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서흥&디에이엔은 창업주의 뜻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된 정현재단은 재즈파크 후원 외에도 한국페스티벌, 서울스프링스페스티벌, 예술의전당 등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에 관한 공헌을 계속해왔다. 유일, 신효범 등 유명

국내 유일 재즈 정기콘서트 ‘재즈파크’ 섬유센터서 열려 바주류 음악 편견 해소하고 젊은 뮤지션 공연기회 제공 전회차 누적 관객만 11만명

구도심 옛 병원 건물 사들이 미술 전시·공연 무대 탐바공 전세대 초월한 소통공간으로 청년 예술인 후원 역할 지역 아파트 내 작업실 제공도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이사

“중앙년총과 젊은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예술 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LIVE ART” (생활 속 예술을 실천한다) 라는 모토에 따라 지난 2017년 광주에서 “김넷과”로 대표되는 메세나 활동용 별채는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이사(88)의 열정과 열의와 지역 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광주는 예부터 예향(藝鄕)으로, 그리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현상으로 지역 예술이 위축된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광주와 도속 건설기업인 영무토건의 박헌택 회장은 문화예술의 가치 찬 예술의 도시 광주를 꿈꾸며 메세나 활동을 시작하였다.

박 회장은 “사람에 어려움이 있어도 메세나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예술인이 오롯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회사 설립과 함께 ‘다움봉사단’을 창단한 그는 직원들과 함께 소통·계승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한 데 이어 2022년 예술인 지원용 사무소로 작업실을 위한 창고(210평)를 마련해 입주한다. 예술인의 소통 장구를 펼치게 되었다.

2021년 대전시청 작가 후원 2000원 광주 수월지구 아파트 내 작가 레지던스 설치, 아파트 건문주에 지역 작가 작품 전시 등으로 메세나 활동의 성과를 넓혀왔다. 작가 레지던스는 광주 구도심 3층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해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 것이고, 건물주에 작품 전시는 2020년 시대구KTX 영무메아루 건문주택을 개관하며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구매 운동도 함께 펼친 활동이다.

특히 2017년 시대를 충언해 광주 동구 대안동에 북한문화공간 ‘김넷과’를 설립한 뒤 시구 앙동과 지원동에 각각 ‘김넷과’ ‘김넷과’를, 나주혁신도시 스페리얼 내 ‘나주 예술의전당 (NAC)’을 설립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

했다”고 설명했다. 옛 병원에 등지를 큰 김넷과는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 오아시스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의 작가들이 미술을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운영, 인문학 강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부산, 나주 등에도 김넷과를 설립해 누구나 편하게 문화를 즐기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 후원과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주고 있다. 아울러 지역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이끄는 작가 작품 전시 등 문화창작영업을 후원하는 문화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신진 음악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김넷과 브라운리 모델링’ 기획을 2019년부터 매년 아트스트 3명을 선정해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박 회장은 “매월 활동지원금과 콘서트장소 지원을 하는 김넷과 ART 콘서트는 지금까지 29차례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사회의 힘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박 회장은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개막 지원금 1억원을 지원했고, 광주 문화재단 문화예술기부금 메세나사업도 3000만원을 기부했다. 박헌택 기자

기업과 예술 ‘아름다운 만남’ 꽃 피었다… 올해도 294쌍

2022 결연식 개최

17년간 2469건, 1018억 후원

15년 인연 HK·행복나눔플러스 ‘올해의 베스트커블’로 뽑혀 연주회·음반 발매 수익 모아 시시일우 위한 장학금 조성



2021년 11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HK와 함께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행복나눔플러스)

경제와 문화예술의 동반 발전을 위한 민남이 올해도 이어진다. 한국예총 나남희(회장 김희근)는 16일 서울 중구 예술클럽호텔에서 ‘202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개최한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를 1대1로 맺어주는 사업이다. 박희나연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면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의 창조적인 문화 경영을 도와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추구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이 예술계에 진입했다.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2469건, 누적 지원 금액은 1018억에 달한다.

매년 열리는 결연식은 기업과 예술 음악인이 모여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이 자리에서는 찾간간 발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온 결연 커플에 ‘올해의 베스트 커블’ 기념패도 수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이 예술계에 진입했다.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2469건, 누적 지원 금액은 1018억에 달한다.

2022년 결연식에서는 코스타 상정사인레이저 정서기계 제조업체 에이치케이(이케이)와 비영리 전문예술법인 행복나눔플러스가 선정됐다. 이들은 15년째 결연을 이어오면서 연주회, 음반 발매 등의 수익금으로 시시일우를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으로 올해 대학생 138명에게 총 1억2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노력에 지속되고 있지만 한 해에 2000명 넘는 청소년이 데뷔 없이 보이스처에서 나오는 ‘가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자신 연주회인 ‘HK와 함께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08년 ‘리빙&기빙(Living&Giving)’ 콘서트가 그 시초다. 수익금도 아동보호시설 출신 대학생의 장학금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쓰인다.

지난해 1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주회는 초연 지휘자 아래 50여 명의 합창단, 5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바비올라리스트 이경신, 소프라노 김순

영, 바리톤 김동성 등이 출연했다. 총관 1283명 중 HK 직원 300명이 자리를 뒀다. 특히 이 공연에는 보이스처에 거주하는 아동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가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자신 연주회인 ‘HK와 함께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08년 ‘리빙&기빙(Living&Giving)’ 콘서트가 그 시초다. 수익금도 아동보호시설 출신 대학생의 장학금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쓰인다.

지난해 1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주회는 초연 지휘자 아래 50여 명의 합창단, 5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바비올라리스트 이경신, 소프라노 김순영, 바리톤 김동성 등이 출연했다. 총관 1283명 중 HK 직원 300명이 자리를 뒀다. 특히 이 공연에는 보이스처에 거주하는 아동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가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자신 연주회인 ‘HK와 함께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08년 ‘리빙&기빙(Living&Giving)’ 콘서트가 그 시초다. 수익금도 아동보호시설 출신 대학생의 장학금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쓰인다.

지난해 1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주회는 초연 지휘자 아래 50여 명의 합창단, 5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바비올라리스트 이경신, 소프라노 김순영, 바리톤 김동성 등이 출연했다. 총관 1283명 중 HK 직원 300명이 자리를 뒀다. 특히 이 공연에는 보이스처에 거주하는 아동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가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자신 연주회인 ‘HK와 함께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08년 ‘리빙&기빙(Living&Giving)’ 콘서트가 그 시초다. 수익금도 아동보호시설 출신 대학생의 장학금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쓰인다.

발레영재에 유학 기회… 국악밴드 심청가 재해석 지원

올해 14쌍 참가결연 성사

2022년 한 해 동안 ‘기업과 예술의 만남’ 14건이 추가로 성사됐다. 한국예총 나남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주회, 뮤지션, 국악, 클래식 음악, 미술, 다원 예술,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단체를 연결해준다.



올해 여름 KT&G문화재단과 세계발레지도자협회회가 맺은 결연을 통해 발레 정재들이 최종 합류 발레 마스터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KT&G문화재단)

이 때 맺어진 단체가 있다(리)도 여러 단체-분야로 결연을 늘리는 기업이 있다. 기업은 메세나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파트너를 추천하고,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먼저 발레 영재에게 더 넓은 세계를 펼쳐줄 기회가 있었다. KT&

올해 여름 KT&G문화재단과 세계발레지도자협회회가 맺은 결연을 통해 발레 정재들이 최종 합류 발레 마스터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KT&G문화재단)

올해 여름 KT&G문화재단과 세계발레지도자협회회가 맺은 결연을 통해 발레 정재들이 최종 합류 발레 마스터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KT&G문화재단)

올해 여름 KT&G문화재단과 세계발레지도자협회회가 맺은 결연을 통해 발레 정재들이 최종 합류 발레 마스터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KT&G문화재단)

2022년 신규 결연 기업·예술단체

기업	예술단체
케이유션	우리들의 눈
케이유션	서울문화연희회
KT&G문화재단	세계발레지도자협회회
KT	텐드스피크
백산연지니여담	페스티벌오케스트라
롯데문화재단	뷰티발매연
문화경영상	유지출발스모크스트라
스타카토리아	은행나무출신사
한국남농협	애너지월드
페스티벌오케스트라	뮤지컬악연드 나다
LG생활건강	음악극합창단 불꽃
크라운해태제과	합창집단 대우기
현대백화점	다국악합창
LG인문문화재단	이비지

미술 교육을 제공한다. 케이유션은 경제로 기부금을 마련해 예술단체를 지원한다. 장수환 기자

매경춘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 예술영재들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한 콩쿠르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개의 콩쿠르에서 상을 받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그만큼 기량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조금 뼈뺀 시선으로 보자면 욕심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그들이 입상하고도 또 다른 콩쿠르에 도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교과서적인 절차는 콩쿠르에서 1등을 한 후에는 세계적 권위의 기획사와 연주자 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사의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기획사들이 콩쿠르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요즘은 본선 채점표까지 공개가 되니, 어떤 성격으로 1등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버렸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대부분

에 욕심이 과한 연주자로 찍히는 순간이다. 게다가 기획사와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은 실력만 갖추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획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낯고 기는 연주자 중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실력 이외에도 다른 현실적인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바로 자국 기업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후원 규모이다. 이것이 연주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1등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계약이 성사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competition after competition'이라는 표현이 생겨났겠는가...

한국메세나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간 문화 예술 지원 규모는 20년 전에 비해 확대되지 않고 정체된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해외 유명 연주자나 단체의 내한 공연이 연과 같은 티켓 수요가 가장된 연주자들의 국내 예술 활동에

대한 후원이다. 이웃 일본의 어느 기업은 이미 오래전에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를 통째로 후원한 적이 있고 (그 당시 일본 피아니스트가 1등을 수상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해외 우수 콩쿠르와 페스티벌을 후원하고 있다. 미국 카네기홀이나 링컨센터 후원 명단을 보면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은 많이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네 나라가 음악 선진국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 나라 사람들밖에 없다”고 뼈 있는 말을 해준 내 독일인 동료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음악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그 긍정적인 효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예술 영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 연주자는 1등을 하고도 기획사와 계약이 안 돼서 또 다른 콩쿠르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보기



지난 9월 진행된 카이프 플러스의 드림그림 부스에 방문한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트롬 대표(가운데), 오예슬 작가(우측)와 드림그림 학생들. 한성자동차 제공

메타버스·증강현실 등 이용 기후위기·환경문제 활동 선도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공식 판매법인인 한성자동차가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미술 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에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등을 이용해 새로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기를 맞은 드림그림은 '메타버스'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New Earth, New World'라는 슬로건으로 메타버스를 통한 확장 현실에서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다양한 상상력으로 표현했다.

지난 3월 진행된 11기 발대식은 빛 꽃이 흩날리는 가상공간 '드림그림 메타플레이스'에서 개최됐다. 울프 아우스트롬 한성자동차 대표와 11명의 신규 드림그림 장학생, 대학생 멘토, 한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참석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한디아(HAN Dia)'가 진행자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디아는 한성 디지털 아바타(Han Sung Digital Avatar)의 약자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는 드림그림의 가상 대학생이다. 한디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한해 사회관계망(SNS)과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 드림그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한성자동차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ESG 캠페인 '드림 그린 타운'도 지난 6월 진행했다. 드림그림 장학생들이 참여해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환경 캐릭터(환경 부캐)를 찾고, 16종

의 환경 부캐가 다채로운 환경 보호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 시즌2의 삽화 작가였던 일라스트레이터 '127(일이칠)'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 캐릭터들을 만들었다.

아우스트롬 대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드림 그린 타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다채로운 ESG 캠페인을 선보이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자동차는 드림그림 장학생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카이프 플러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드림그림 학생들이 증강현실을 이용해 구상하고 디자인한 스토리에 디지털 아티스트 오예슬 작가의 해석이 더해진 'Metabun_ny World'가 전시에 소개됐다.

한성자동차는 2017년부터 '카이프 서할' 및 '카이프 플러스'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하며 드림그림 장학생들과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작품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하며 드림그림 장학사업이 가지고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아우스트롬 대표는 "젊은 세대에 게 예술은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은 아시아의 '아트 허브'로 발돋움하는 중"이라며 "한성자동차는 드림그림 장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한신 기자

외부 소음 차단해 미디어아트 몰입도 높인다

동성케미컬, 국현에 흡음재 아트부산 등 지역행사도 지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증

미술관에서 미디어아트를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다른 작품이나 외부 잡음을 차단하려면 흡음재가 필요하다. 부산 화학소재 전문 기업 동성케미컬은 자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벨라민폼 흡음재 '빅셀(VIXUM)'을 국립현대미술관에 후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후원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만원 수준의 흡음재가 전시장에 무상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오민 작가의 영상물 작품 '헤테로포니' 전시장에 '빅셀'이 들어가기에 된 것을 계기로 동성케미컬이 미술관 측에 먼저 후원을 제안했다. 이연주 동성케미컬 홍보팀 부장은



올해 3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선보인 오민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헤테로포니' 내부 전경. 동성케미컬이 기증한 흡음재 '빅셀'으로 만든 흡음판이 천장에 설치돼 있다.

“작품 관람 환경과 공간 분위기를 중시하는 작가 요구에 맞출 수 있고, 흡음재 현대미술관에 후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후원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만원 수준의 흡음재가 전시장에 무상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오민 작가의 영상물 작품 '헤테로포니' 전시장에 '빅셀'이 들어가기에 된 것을 계기로 동성케미컬이 미술관 측에 먼저 후원을 제안했다. 이

이 밖에도 동성케미컬은 신발, 섬유,

자동차, 포장재, 빌딩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화학 소재를 만든다. 연 매출 1조원, 총 임직원 수 1800여 명으로 중견기업이다. 계열사로는 초저온 보냉재 전문 기업 동성화인텍, 증장비 부품을 다루는 동성터씨에스, 헬스케어 업체 제네웰 등이 있다.

문화예술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은 1959년 창립 초기부터 백재갑 동성그룹 창업주의 의지로 꾸준히 진행돼왔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제적 아트페어로 성장한 '아트부산'을 한국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제도를 통해 2016년부터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인 '동성패스타'를 부산 시민을 포함한 1400여 명이 함께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으로 꾸렸다. 아울러 강원도의 클래식 음악 축제인 평창대관령음악제를 2017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후원 활동으로 동성케미컬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문화부가 매년 심사를 거쳐 모범적인 후원 단체와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동성케미컬 외에 △굿불아카데미 △신세계엘앤비 △영무토건 △중소기업은행 △지에스퍼워를 창업주의 의지로 꾸준히 진행돼왔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Korea Mecenat Association
2022 Annual Report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일	2023. 2.
발행인	김희근
편집	경영기획팀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전화	02.761.3101-2
홈페이지	www.mecenat.or.kr